creative commons
COMMONS DEED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dCollection

碩士學位論文

국어 겹문장 교육 방안 연구
- 부사절의 설정 문제를 중심으로 -

濟州大學校 敎育大學院

國語敎育專攻

金 貞 兒

2017年 8月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국어 겹문장 교육 방안 연구

- 부사절의 설정 문제를 중심으로 -

指導敎授 송 현 정

김 정 아

이 論文을 敎育學 碩士學位 論文으로 提出함

2017年 6月

김정아의 敎育學 碩士學位 論文을 認准함

審査委員長 _____ ㊞

委 員 _____ ㊞

委 員 _____ ㊞

濟州大學校 敎育大學院

2017年 6月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A Study on education methods of Korean complex sentences

- Focused on the issue of the grammatical category in adverbial clauses -

Kim, Jeong-Ah

(Supervised by professor Song, Hyun-Jung)

A thesis submitted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 for the degree of Master of Education

2017. 06.

This thesis has been examined and approved.

.....

Thesis director, Song, Hyun-Jung, Prof. of Korean Language Education

.....

.....

.....

.....

Date

Department of Korean Language Education
GRADUATE SCHOOLOF EDUCATION
JEJU NATIONAL UNIVERSITY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국문 초록>

국어 겹문장 교육 방안 연구

- 부사절의 설정 문제를 중심으로 -

김 정 아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국어교육전공

지도교수 송 현 정

학교 문법은 기술 문법의 성과 그 자체가 교육적 대상이 될 수는 없다. 교육적 차원에서의 고려를 바탕으로 교육 내용이 선정되고 적용되는 것이다. 그러나 현행 국어 겹문장 교육은 그 체계에 관해 복수의 관점을 취하고 있어 교사나 검인정교과서의 관점에 따라 교육 내용이 선정됨은 물론 학습자 간 지식 체계가 상이해질 수 있다는 문제점을 내포한다.

한편으로 겹문장은 국어 문법 원리와 특성을 지닌 국어 활용의 주된 현상으로, 다양한 유형의 특성을 포괄하고 있어 학습적 측면에서 매우 유용한 탐구 주제가 될 수 있다. 그러나 학교 문법의 겹문장 교육은 단순히 '표현 효과'에 중점을 두고 교육 내용이 구성되어 있어 그 교육적 가치가 제대로 구현되고 있지 않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근거하여 이 연구에서는 겹문장 교육의 혼란을 줄일 수 있는 하나의 기본안을 제시함과 동시에 교육적 유용성을 고려한 교육 내용 체계화에 초점을 맞추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Ⅱ장에서는 국어과 교육과정에 따른 겹문장 체계의 변화 양상과 교과서 분석을 통해 겹문장 교육 현황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는 겹문장 교육과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관련한 현황을 살펴봄으로써 겹문장 교육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근거한 교육 내용 체계화의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함이다.

Ⅲ장에서는 겹문장 교육의 혼란을 줄이기 위한 하나의 체계를 제안하기 위해 대상이 되는 겹문장의 국어학적 특성과 그 복합적 성격과 관련되는 개념을 살펴보았다. 겹문장의 주요 개념인 '접속'과 '내포'에 대해 검토해보았으며, '접속'과 '내포'의 개념과 구조의 중첩으로 종속절을 부사절로 포함할 수 있다는 이론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또한 대등절, 종속절, 부사절의 설정 문제를 국어학적 관점으로 통찰하여 대등절의 독립적 지위를 인정하는 반면, 종속절을 부사절의 하위 범주로 포함하여야 한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위 논의를 바탕으로 Ⅳ장에서는 기존 겹문장 교육의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국어 겹문장 체계의 기본안을 바탕으로 겹문장 교육의 실제를 제시하였다. 겹문장의 구조적 특성에 초점을 맞추는 탐구 활동을 제시하고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학습자가 겹문장을 다양한 문법 요소의 구조적 유기체로 바라볼 수 있도록 하였다. 이는 국어 겹문장에 대한 온전한 이해를 돕는 것은 물론, 궁극적으로 국어 언어 구조를 탐색하고 인지할 수 있는 계기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는 기존 겹문장 교육을 비판적으로 고찰하고 교육적 관점에서 국어 겹문장에 관해 논의함으로써 더 발전적인 겹문장 교육을 실현시키고자 하였다. 또한 겹문장을 통해 언어에 관한 탐구에 이르는 문법 교육의 궁극적인 목적을 지향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교육 내용의 구안을 시도했다는 점에서 이 연구의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 목 차 >

Ⅰ. 서론 ····· 1
1. 연구 목적 및 필요성 ····· 1
2. 선행 연구 검토 ····· 3
3. 연구 내용 ····· 6

Ⅱ. 국어 겹문장 교육 내용 분석 ····· 8
1. 교육과정에 따른 겹문장 체계 변화 양상 ····· 8
2. 겹문장 교육 현황에 대한 비판 ····· 12

Ⅲ. 국어 겹문장에 관한 통사적 논의 ····· 20
1. 접속과 내포의 의미와 구조 ····· 21
2. 대등절과 부사절 ····· 30
3. 종속절과 부사절 ····· 35

Ⅳ. 국어 겹문장 교육 방안 ····· 41
1. 국어 겹문장 교육 내용 구성 방안 ····· 41
2. 국어 겹문장 교육 내용 구성의 실제 ····· 48

Ⅴ. 결론 ····· 60

<참고 문헌> ····· 62
<Abstract> ····· 66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 표 목 차 >

<표 1> 연구 대상 교과서 ····· 6
<표 2> 2009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의 '문장' 세부 내용 ····· 11
<표 3> 현행『독서와 문법』의 문장 체계 ····· 12
<표 4> 문장 허용 체계 ····· 14
<표 5> 검인정교과서의 겹문장 '표현 효과' 교육 내용 ····· 17
<표 6> 국어 겹문장 체계 기본안 ····· 43
<표 7> 국어 겹문장에 대한 단계적 지식 내용 요소 ····· 47

< 그림 목차 >

[그림 1] 국어 겹문장 교육 내용 구성 방향 ····· 45
[그림 2] 국어 겹문장 교육의 단계적 지식 ····· 46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Ⅰ. 서론

1. 연구 목적 및 필요성

학교 문법은 기술 문법의 성과를 바탕으로 하여 국어의 특질과 언어의 본질에 대한 지식 함양과 더불어 올바른 국어 사용자를 양성하는 데 그 목적을 둔다. 학교 문법은 언어 현상을 있는 그대로 분석하고 그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공존하는 기술 문법에 대응된다. 교육적 관점에서 그 내용과 기술 방향이 선정되어야 하며 모국어 화자가 추상적으로 내포하고 있는 문법 요소를 구체적인 개념으로서 체계화시키기 위해 통일적으로 구성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학교 문법은 기술 문법의 연구 성과를 수용하되, 문법 교육 내용이 실제 국어과 교수·학습으로 실현되기에 적절한 통일적이고 체계적인 조직 방식을 고려하여 교육과정 차원에서 설계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처럼 학교 문법과 기술 문법의 본질적 차이가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학교 문법은 기술 문법의 지식 체계를 그대로 반영하면서 문법 쟁론 또한 그 틀 안에 포함하고 있다. 이로 인해 효과적이고 정확한 교육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학습자가 문법 학습을 기피하는 현상으로까지 나타나고 있다.[1)]

국어는 교착어로서 다른 언어들과 달리 특정 문법 요소들의 결합으로 그 범주가 결정되기 때문에 국어의 특질을 파악함에 있어 문법 요소의 기능을 밝히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그와 관련된 개념과 범주 설정의 근거는 아직까지도 명확하게 합의되지 못한 상태이며 그중 겹문장 체계는 끊임없는 논쟁의 대상이

1) 한국교육개발원의 통계자료에 따르면 고등학교 국어교과 선택 과목으로 문학(31.04%), 독서(23.24%), 작문(17.48%)로 나타났고, 선택 비율이 10%미만으로 낮은 수치를 보인 선택 과목으로는 화법(4.84%), 문법(8.04%)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김주아(2010), 「일반계 고등학교 보통교과 선택 과목 개설현황」, 교육과학기술부·한국교육개발원 통계연보 참조.
김은성(2006)에 따르면 학습자들의 문법 학습 선호도 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 중 5.6%만이 문법 학습을 좋아한다고 답했으며, 매우 좋아한다고 답한 응답자 또한 2.1%에 불과해 전반적으로 매우 낮은 선호도를 보이고 있다. 기피 요인으로는 문법 학습의 무의미함, 지식 암기에 불과함, 이해가 어려움, 지식 내용이 체계적이지 못함 등을 꼽았다. 김은성(2006), 「국어 문법 교육의 태도 교육 내용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참조.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되고 있다.

특히 안은 문장의 부사절과 이어진 문장[2]의 대등절, 종속절의 설정 문제는 국어학계는 물론 학교 문법에서조차 복수의 관점을 취하고 있다. 제7차 국어과 교육과정의 교사용 지도서에는 부사절과 종속절을 분리하여 인정하는 겹문장 체계를 원칙안으로 제시하고 종속절을 부사절에 포함하는 허용안을 제시하는 한편, 대등절과 종속절 모두 부사절에 포함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밝히고 있다. 2007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에서는 물론 2009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에서도 이에 대한 통합된 견해가 나타나고 있지 않으며 검인정교과서마다 견지하는 관점의 차이로 인해 겹문장 체계의 원칙안만을 제시한 경우와 허용안을 함께 제시하여 지도 시 활용하도록 안내하는 경우로 양분되고 있다.

이로 인해 교사가 어떤 관점을 인정하느냐에 따라 학습자 간 서로 다른 지식이 형성되는 것은 물론, 교사는 학교 현장에서 겹문장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가질 수 없게 된다. 겹문장에 대한 학습자의 지식이 균일하지 못하고 교사와 교과서의 관점에 의해 개념화되고 있는 것이다.

겹문장은 국어 문법의 특성과 원리를 지닌 국어 활용의 주된 현상이며 그 안에 다양한 유형의 특성을 포괄하고 있어 학습적 측면에서 매우 유용한 탐구 주제가 될 수 있다. 여러 문법 요소가 결합한 구조적 유기체로서 각 요소 간의 관계 양상을 탐구하도록 할 수 있는 것이다. 겹문장 탐구 활동은 풍부한 학습 경험을 제공해줄 뿐만 아니라 탐구를 수행해 나가면서 언어 구조의 본질을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는 경험의 매개가 될 수 있다. 그러나 학교 문법의 겹문장 교육은 그 교육의 방향이나 내용에 대한 본질적 고찰이 따르지 못했다. 단순히 '표현 효과'에 중점을 두고 교육 내용이 구성되어 있어 그 교육적 가치가 제대로 구현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문법 교육에서 겹문장의 구조를 분석하도록 하는 일련의 활동들은 언어활동을 위해 매 순간 활용하는 문장 그 자체를 대상화함으로써 모국어 화자로서 단순히 인식해온 기본 지식을 넘어 언어 생성 과정의 규칙을 이해하는 단계로 나아가는

2) 이 연구에서는 '접속문'과 '내포문'의 명칭을 학교 문법에 따라 '이어진 문장'과 '안은 문장'으로 통일하여 기술할 것이다. 다만, 연구자의 견해를 서술하는 경우에는 필요에 따라 연구자의 용어를 혼용하고자 한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계기가 될 수 있다. 겹문장 체계는 바로 이 교육적 유용성이 고려되지 못한 채 혼란적인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겹문장을 중심으로 아직도 미해결로 남아 있는 대등절, 종속절, 부사절의 설정 문제를 시작으로 겹문장 교육 내용에 초점을 두고 논의를 전개할 것이다. 이를 통해 국어학계에서 제시되고 있는 겹문장 체계들의 타당성을 검증하고 하나의 기본안을 기준으로 설정하고자 한다. 또한 기본안을 바탕으로 문법 교육의 혼란을 줄이고 겹문장의 교육적 유용성을 마련할 수 있는 겹문장 교육 내용 체계화에 초점을 맞출 것이다. 이는 기존 겹문장 교육이 모호한 입장을 기반으로 행해진 데에 대한 비판적 인식을 바탕으로 한다.

2. 선행 연구 검토

이 연구에서는 학습자와 교사의 혼란을 줄이고 학습자의 문법 체계에 대한 통찰력과 논리적 사고력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국어 겹문장 교육 내용을 구성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그 근간이 되는 겹문장과 관련한 연구 성과를 고찰할 필요가 있다. 겹문장과 관련한 이러한 성과들은 학습자에게 올바른 겹문장 체계 선정 방향을 모색하는 이론적 근거를 마련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

학교 문법에서 겹문장이 혼란적인 양상을 띠는 근본적인 이유는 대등절, 종속절, 부사절에 대한 문법적 지위가 명확히 확립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대등절, 종속절, 부사절의 문법적 지위에 대하여 무수히 많은 논의들이 진행 중이지만 세 견해로 압축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등절, 종속절, 부사절 모두 그 문법적 지위를 인정하는 견해, 둘째, 종속절을 부사절에 포함시켜 이어진 문장의 하위 범주로 대등절만을 인정하는 견해, 셋째, 접속을 내포의 하위 개념으로 파악하여 대등절, 종속절 모두 부사절의 하위 범주에 포함한 견해를 들 수 있다.

첫 번째로 대등절, 종속절, 부사절 각 문법적 범주를 모두 인정하는 견해는 현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행 학교 문법에서 원칙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최현배(1971)[3]는 겹월(複文), 즉 겹문장을 가진월(包有文)과 벌린월(竝列文), 이은월(連合文)로 구분하고 가진월은 주종성을, 벌린월과 이은월은 대등성을 그 특성으로 설정하여 접속문과 내포문의 이분 체계로 나타내고 있다. 여기서 벌린월은 학교 문법의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 이은월은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과 상응한다. 최현배는 이은월이 '어찌마디'(부사절)가 아님을 확언하면서 '말맛이나 말뜻', 즉 의미적 측면에서 겹문장 체계를 분류하고 있다. 이는 의미만을 기준으로 하였기 때문에 연구자의 주관에 따라 문장 유형이 결정될 수 있다는 우려를 갖는다.

남기심·고영근(1985)에서는 '접속'의 체계에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과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을 설정하고, '내포'에 부사절을 포함시켜 대등절, 종속절, 부사절 각각의 독립적 지위를 인정하고 있다. 다만 종속절이 부사의 기능적 측면과 유사하다고 하여 부사절과 종속절의 설정 문제에 관한 논란을 인정하고 있다. 특히 '-듯이, -게, -도록'으로 생성된 종속절은 부사절로 볼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밝히고 있어 종속절을 부사절의 하위 범주로 포함하는 견해와 유사점을 보인다.[4]

권재일(1992)은 복합문, 즉 겹문장을 접속문과 내포문으로 나누고 접속문은 '대등접속문'과 '종속접속문'으로, 내포문은 '명사구 내포문'과 '동사구 내포문'으로 구분하여 '명사구 내포문'의 하위 요소로 '관형화내포문'을 설정하였다. 대등절, 종속절, 부사절과 같은 구체적인 명칭이 등장한 것은 아니지만 '동사구 내포문'이 서술 기능의 보완, 곧 동사를 수식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부사절에 가깝게 설명되어 있어 대등절과 종속절, 부사절을 모두 인정하는 견해에 포함할 수 있다.

이러한 첫 번째 견해들은 현행 학교 문법의 관점과 동일하나, 체계 분류의 근거를 문법적 기준이 아닌 의미 기준을 들어 설명하고 있으며 부사절의 설정 문제에 관해 명확한 입장을 취하고 있지 못하다.

두 번째 견해로 먼저 유현경(1986)[5]은 복문을 내포문과 접속문으로 나누고 접

---

3) 최현배(1971),『우리말본』, 정음문화사, 823쪽.

4) "이상의 종속적 연결 어미에 의해 이끌리는 종속절은 연결문의 한 부분이 아니라, 안은 문장 속의 안긴 절이며, 그것은 곧 부사절이라는 사실을 지적했다. 이 중에는 문장 부사어를 이루는 것이 대부분이되 성분 부사어를 이루는 것도 있음을 보였다. 따라서 종속적 연결 어미로 분류되는 어미들은 전성법의 부사형 어미라고 하는 것이 타당하다." 남기심(2002),『현대 국어 통사론』, 태학사, 266쪽.

5) 유현경(1986),「국어 접속문의 통사적 특질에 대하여」,『한글』191, 한글학회, 77-104쪽.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속문에서 대등접속문만을 그 하위 범주로 인정하고 있다. 통사적 특질을 고려하면 종속접속문은 내포문과 유사점을 가지며, 기능상으로는 부사화내포문으로 볼 수 있다는 점을 주장하면서 대등절과 부사절의 독립적 지위만을 인정한다.

최재희(1997)[6]는 기존 내포절이었던 관형사절 중 동격 관형사절과 명사절은 보충어의 역할을 하는 것에 비해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의 선행절은 부가어(Adjunct)의 기능을 하므로 종속절을 부사절의 하위 범주로 구분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하였다.

이익섭(2003)은 '합성문'이란 새로운 개념을 제시하고 이를 다시 '병렬문'과 '내포문'으로 나누고 있다. 여기서 '병렬문'은 대등접속문을 의미하는 것으로 기존의 '접속문'이 대등과 종속 모두를 아우르는 용어이기 때문에 혼란이 가중될 수 있다고 보고 새로운 명칭을 제시한 것이다. 기존 용어를 새롭게 설정하면서 종속절과 대등절이 한 범주로 묶일 수 없음을 밝히고, 종속절을 부사절에 포함하면서 종속절의 독립적 범주를 인정하고 있지 않다.

세 번째로는 위의 '접속'과 '내포' 두 영역의 중첩 지점을 인정하여 종속절을 부사절에 포함한 견해와 달리 접속 그 자체를 내포에 해당하는 개념으로 보는 입장으로 대등절과 종속절을 내포절, 그 중 부사절에 포함하고 있다.

이는 주로 문장의 유형을 구분하는 통사적 형태소인 '어미'에 초점을 맞추고 논의를 전개한다. 대등적 연결 어미, 종속적 연결 어미, 보조적 연결 어미가 동일한 표지로 사용되고 있으며 어미 체계를 기반으로 겹문장 체계를 정합성 있게 기술하기 위해서는 이들 모두 부사형 어미에 포함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는 견해와 대등적 연결 어미는 선행절에서 완전히 독립적이지 못한, 즉 어느 정도 종속적인 경향을 보이므로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에서 선행절과 후행절을 완전한 대칭으로 보기 어렵다는 견해, 대등적 연결 어미를 접속부사로 대용할 수 있다는 견해 등을 들어 대등절, 종속절 모두 부사절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왕문용(1994), 민현식(2002), 유현경(2002)[7] 등이 이에 포함된다. 그러나 이는 연결어미와 이어진 문장의 층위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서 교육 내용으로 수용

6) 최재희(1997),「국어 종속 접속의 통사적 지위」,『한글』238, 한글학회, 119-144쪽.
7) 유현경(1986)에서 종속절만이 부사절에 속함을 밝혔으나 유현경(2002)에서는 접속을 내포의 하위 개념으로 인식하고 대등절, 종속절 모두 부사절에 포함하는 새로운 체계를 제안한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되기에는 신중한 국어학적 검증이 필요하다.

겹문장과 관련된 논의는 전반적으로 정합성을 갖춘 문장 체계의 필요성에서 대두하여 체계 정립을 모색하는 방향으로 전개되었다. 기존 논의들은 국어학적 관점에서 겹문장을 분석하여 통일된 문장 체계를 구축하고자 하였으며 이는 이 연구의 일차적인 목표 달성을 위한 논의의 연장선에 있다고 할 수 있다.

3. 연구 내용

이 연구는 학교 문법의 겹문장 교육에서 혼란이 일어나고 있음에 주목하여, 국어 겹문장 교육 내용을 점검하고 국어 겹문장 교육의 방향을 설계하여 이를 기반으로 교육 내용 구성을 위한 원리를 밝히고 겹문장 교육 내용의 실제를 구성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먼저 Ⅱ장에서는 겹문장 교육의 현황을 살펴봄으로써 국어 겹문장 교육 내용 체계화의 필요성을 강조하고자 한다. 겹문장 교육 내용을 살펴보기 위한 자료로는 국어과 교육과정과 현행 검인정교과서를 바탕으로 하되, 교과서는 고등학교 학습자를 대상으로 교육 실제를 서술할 것이기 때문에 고등학교 검인정교과서에 국한할 것이다. 2009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의 공통 교육과정인『국어』와 선택 교육과정『국어Ⅰ,Ⅱ』,『독서와 문법』에서 모두 국어 문법을 다루고 있으나 그 중 국어 문법 영역이 가장 심화·발전된『독서와 문법』을 분석 대상으로 선정할 것이다.

<표 1> 연구 대상 교과서

출판사	교과서
미래엔	독서와 문법
비상교육	독서와 문법
천재교육	독서와 문법
교학사	독서와 문법
창비	독서와 문법
지학사	독서와 문법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따라서 위 <표 1>에서 보이는 6종의 교과서의 겹문장 관련 내용을 바탕으로 겹문장 교육 현황과 그 내용 전개 양상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이 연구에서 논의할 분야는 문법의 여러 분야 중 겹문장에 국한된다. 따라서 교육 내용 체계에 따른 겹문장 영역의 내용을 분석하여 해당 검인정교과서에서 '겹문장'과 관련된 부분만 포함하였으며 단원 구성의 명칭이 다르더라도 겹문장과 관련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경우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Ⅲ장에서는 학교 문법에서 올바른 국어 겹문장 체계의 이론적 근거를 확보하기 위해 대등절, 종속절, 부사절의 통사론적 특성을 비교·분석할 것이다. 대등절, 종속절, 부사절 각각의 예시를 통해 각 문장이 실현되는 일정한 구조 및 규칙 양상을 파악하고, 대등절과 종속절이 부사절과 변별 가능한 특징적인 통사 규칙이 있는지를 분석하여 합리적인 관계 정립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 구분하는 변별 기준으로는 이관규(1999)에서 제시한 기준을 적용할 것이다. 겹문장 체계 하위 유형의 설정 문제를 밝히는 논의는 문법 교육 내용으로 편성하기에 알맞은 하나의 기본안을 제시하는 근거가 될 것이다.

이 연구에서 겹문장이란 의사소통을 위한 의미를 구성하는 언어적 자원으로서 통사적·의미적 구조까지 포괄하는 다양한 요소들이 결집된 구조적 유기체이다. 이는 국어 겹문장 차원에서 단순히 겹문장 체계의 설정만을 다루고자 하는 것이 아닌 겹문장을 교육적 탐구 활동의 유용한 주제로서 상정시키고자 함에 있다. 여러 요소가 결합해 구성된 겹문장을 대상으로 삼아 기존 겹문장 교육의 한계를 보완하고 교육적 유용성을 확장할 수 있는 방향과 시사점들을 발견하여 교육 내용을 구안하고자 하는 것이다.

따라서 Ⅳ장에서는 Ⅲ장에서의 결론을 바탕으로 탐구 활동 과정의 실제를 적극적으로 고려하여 겹문장 교육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료화하고자 한다. 겹문장 교육을 위한 기본 관점을 설정하고 이를 기반으로 겹문장 교육 내용을 마련하고 탐구 과정을 구성할 것이다.

국어 겹문장에 대한 국어학적 견해가 정립되지 못한 상태에서 교육적 실제를 제시하는 데는 어려움이 따를 것이다. 그러나 이는 기존 연구를 바탕으로 타당한 기준을 마련하고 적용해 보는 과정과 더불어 국어 겹문장의 교육적 유용성을 모색해봄으로써 발전된 교육 내용을 제안할 수 있는 유의미한 논의가 될 수 있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Ⅱ. 국어 겹문장 교육 내용 분석

국어 겹문장 교육 내용을 제안하기 위해서는 학교 문법에서 겹문장 교육을 어떤 방식으로 다루어 왔는지, 국어과 교육과정과 교과서 층위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구현되어 왔는지를 분명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국어 겹문장 교육 내용과 관련하여 교육과정 및 교과서 검토를 통해 교육 내용을 마련하기 위한 예비적인 고찰을 수행하고자 한다.

1. 교육과정에 따른 겹문장 체계 변화 양상

제7차 국어과 교육과정 이전의 교육과정들은 모두 '부사형 어미'를 인정하지 않는다. 이 연구에서는 '부사형 어미'의 필요성을 인정하는바[8] 제7차 국어과 교육과정 이후의 국어과 교육과정을 살펴볼 것이다. 7차에서는 '부사형 어미'를 인정하지 않아 모호하고 불균형하게 기술되었던 문장 체계의 문제점을 개선하였고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을 '부사절을 안은 문장'으로 볼 수 있다는 국어학계 다수의 관점을 수용하여 종속절을 부사절에 포함할 수 있음을 명시하였다.

그러나 제7차 국어과 교육과정은 어미와 문장 체계에 대해 다소 난해한 입장을 보인다. 이어진 문장의 하위 범주로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과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을 인정하고 있으면서도 부사절에 종속절을 포함할 수 있는 것은 물론 대등절, 종속절 모두 부사절의 하위 범주로 볼 수 있다는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다. 하나의 문법적 현상에 관해 3가지 이상의 관점을 제시하는 것은 학습자로 하

8) 부사형 어미 설정의 필요성은 남기심(1985)에서 잘 드러난다. 국어의 주요 문장성분은 체언, 용언, 수식언 세 가지인데 체언은 격조사와 결합하여 다른 품사들이 지니는 기능을 나타낸다. 격조사와 결합함에 따라 체언은 나머지 주요 품사인 형용사, 동사, 관형사, 부사의 성분으로 문장 속에서 활용되는 것이다. 반면 용언은 명사형, 관형사형으로의 활용만 인정하고 부사형으로의 활용을 인정하지 않으며 그에 따라 부사형 어미를 설정하지 않는 것은 문법 체계의 균형감은 물론 실제 문법 현상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어렵다는 한계점을 가진다. 남기심(1985), 「접속어미와 부사형 어미」, 『말』 10, 연세대 한국어학당 참조.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여금 언어 지식을 활용한 언어 활동 과정에서 명확한 개념이 형성되지 못해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문제점을 갖는다.

(1) 용언의 활용형을 부사어로 인정하느냐 하는 문제도 좋은 탐구 거리이다. 이는 용언의 활용 체계와 직결되어 있는데, 용언의 활용에서는 연결 어미로 처리하는 '-아/-어, -게, -지, -고'를 가진 용언의 일부를 부사어로 보기도 하나 그 한계가 문제가 된다. 대등적인 연결 어미나 종속적인 연결 어미로 이어진 문장의 상위 범주도 결국은 부사절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활용 체계 문제는 문장의 성분 문제와 연결하여 흥미로운 언어 현상의 하나로 탐구해 보도록 할 수 있다. (교육부, 고시 제 1997-15호)

제7차 국어과 교육과정 이후 총 세 차례 이상의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이 고시되었으나 겹문장 체계는 제7차 국어과 교육과정과 비슷한 복수의 관점을 고수하고 있다. 국어 겹문장 교육과 관련하여 교육적 유용성[9]을 고려한 통일된 체계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지만 그 관점과 내용 면에서 별다른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다. 학습자에게 정확한 개념을 제시해주지 않으면 그 경계가 모호하고 복잡하게 되어 혼란이 가중될 뿐만 아니라 교사의 관점에 따라 학습자의 교육 내용이 선정될 것이다. 제7차 국어과 교육과정 이후 개정된 국어과 교육과정 해설서의 겹문장과 관련된 설명은 다음과 같다.

(2) 문장의 종류는 기본적으로 홑문장과 겹문장이 있으며, 겹문장은 안은 문장과 이어진 문장으로 나누어진다. 겹문장 논의에서는 부사절 설정 문제가 탐구거리가 된다. 즉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의 선행절[종속절]을 부사절로 볼 수 있느냐 하는 문제인데 이미 7차 문법 교과서에서는 둘 다 인정한 바 있다. 대등적으로 이어진 문장의 선행절[대등절]까지 부사절로 볼 수 있느냐 하는 문제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이들의 문제는 형태를 중심으로 보아 부사절로 볼 것인가 아니면 기능을 중심

9) 교육적 유용성이란 대단히 복잡한 개념이다. 실생활에서의 직접적 사용이랑 유용의 측면도 있으나, 그것보다는 계속되는 학습을 가능하게 하는 기초로서의 유용성, 그리고 사물을 판단할 때 배경적·해석적 지식이 되는 유용성을 의미한다. 유용하지만 기타 일상 경험을 통하여 후속적으로 습득이 가능한 단편적 유용성보다는 학교에서의 유용성은 기초 개념이 습득되지 않으면 후속 학습이 어려운 장기적인 유용성을 고려하는 것이 적합하다. 허경철(1992), 「Ⅰ. 제6차 교육과정 각론 개정의 주요 방향」, 교육개발 제14권 제3호(통권 78호), 27쪽.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으로 보아 종속절 또는 대등절로 볼 것인가 하는 근본적인 문법관에 따라 입장이 달라질 수 있을 것인데, 현행 학교 문법에서는 대등절까지 부사절로 보는 견해는 무리가 있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교육인적자원부, 고시 제 2007-79호)

(3) 문장의 종류는 기본적으로 홑문장과 겹문장으로 나눌 수 있다. 여기에서 겹문장은 안은 문장과 이어진 문장으로 나누어진다. 겹문장 논의에서는 부사절 설정 문제가 탐구거리가 된다. 즉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의 선행절[종속절]을 부사절로 볼 수 있느냐 하는 문제인데 이미 7차 '문법' 교과서에서는 둘 다 인정한 바 있다. 한편, 대등적으로 이어진 문장의 선행절[대등절]까지 부사절로 볼 수 있느냐 하는 문제도 논란의 여지가 있다. 이들의 문제는 형태를 중심으로 보아 부사절로 볼 것인가 아니면 기능을 중심으로 보아 종속절 또는 대등절로 볼 것인가 하는 근본적인 문법관에 따라 입장이 달라질 수 있을 것인데, 현행 학교 문법에서는 대등절까지 부사절로 보는 견해는 무리가 있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 2009-41호)

앞서 언급한 7차와 더불어 2007, 2009 국어과 교육과정[10] 해설서에 공통적으로 명시된 대등절과 부사절의 설정 문제는 보다 많은 검증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 고등학교 단계에서는 지나치게 개방적인 학문적 접근으로 판단된다.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마저 부사절을 안은 문장에 포함하는 이러한 견해는 접속문 그 자체를 부정할 뿐만 아니라 연결 어미 설정의 필요성마저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2007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과 2009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고시 제 2009-41호)에서는 7차와 달리 "현행 학교 문법에서는 대등절까지 부사절로 보는 견해는 무리가 있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임을 덧붙여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설정 문제에 대한 논의들을 제시함과 동시에 "근본적인 문법관에 따라 입장이 달라질 수 있다"고 명시하는 것은 교수자의 다양한 입장을 존중하는 견해로 해석된다. 이는 학습자가 교과 내용을 이해하는 상황 및 과정에서 교수자에 의해 관점이 선택될 수 있음을 뜻하는 것으로 학습자 간 문법 지식 체계가 상이해질 수 있다는 우려

10) 2009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은 2009년 12월 처음 총론과 국어과 선택 교육과정이 고시된 이후 2012년까지 부분 수정 고시된 까닭에 처음 고시된 시점을 기준으로 통일하여 기술할 것이다. 다만, 고시된 시기를 명확히 밝힐 필요가 있을 때에는 '제 2009-41호'(2009년 12월 23일 고시), '제 2011-361호'(2011년 8월 9일 고시), '제 2012-14호'(2012년 7월 9일 고시) 등으로 고시번호를 표기하고자 한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가 따른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2009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고시 제 2012-14호)에 따른 겹문장 교육은 '표현 효과'에 맞는 겹문장 사용 방식을 구사할 수 있도록 하는 활동을 지향하고 있다. 이에 따라 홑문장과 겹문장을 설명하고 각 겹문장의 하위 유형을 들어 다양한 유형의 문장을 사용함으로써 형성되는 표면적인 표현 효과를 탐구하는 내용으로 구성된다.

<표 2> 2009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의 '문장' 세부 내용

고등학교 - 문장-(12)	(12) 의미 구성에 기여하는 문법 요소의 개념과 표현 효과를 탐구한다. 문장의 성분과 짜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주요 문법 요소가 문장이나 글 전체에 미치는 표현의 의미 효과를 탐구해볼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종결 표현, 피동·사동 표현, 높임 표현, 시간 표현, 부정 표현, 인용 표현 등 주요 문법 요소들이 사용되는 양상을 이해하고 특히 독서와 관련지어 그것들이 문장과 글 전체에 미치는 표현의 효과를 탐구하도록 한다. 이를 위해서는 기사문, 광고문, 시, 소설 등 실제 국어 자료를 통하여 학습하고 활용하도록 한다. (고시 제 2012-14호)

이러한 교육 내용을 위해서는 학습자가 기존 자신들이 사용하는 문장 유형을 '문법 요소', 즉 문법적 단위로 바라봄에 따라 그 의미, 곧 '표현 효과'가 생성되는 원리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구성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실제 교육 내용은 홑문장을 사용했을 때와 겹문장을 사용했을 때, 그리고 겹문장 하위 유형의 문장 사용에 따른 표면적 표현 효과만을 단순히 전달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겹문장은 다양한 문법 요소의 결합으로 구성된 것이지만 '표현 효과'에 그 중점을 두고 교육 내용이 구성되어 있어 그 교육적 가치가 제대로 구현되지 못하고 있다. 언어는 여러 요소 간의 관계에 따라 생성되는 것으로 겹문장 또한 구체적인 관점에서 그 영향 관계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겹문장을 문법 요소의 구성체로 바라볼 수 있도록 하고 문법 요소가 결합하면서 생성되는 '의미', 곧 구조와 의미 탐구라는 단계적 내용 구성이 필요한 것이다. 이로써 겹문장 교육은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관계적 구조체로서 겹문장을, 나아가 전반적인 국어 형성 과정을 이해하는 교육 내용으로 그 교육적 가치를 발휘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겹문장 교육의 주안점인 '표현 효과'의 경계에서 벗어나 새로운 구조적 유기체로서 겹문장으로, 겹문장 교육 내용 체계화에 초점을 두고자 한다.

2. 겹문장 교육 현황에 대한 비판

학교 문법은 국어학계의 연구 결과를 적용하는 것이지만 연구 결과 그 자체가 교육적 대상이 될 수는 없다. 교육 내용으로 선정되고 적용되기 위해서는 교수·학습 방법, 교수요목, 교육과정 등과 같은 교육적 차원에서의 고려가 반영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론적 연구의 난제를 학교 문법에 적용하여 학습자에게 선택하도록 하는 것은 학습자의 수준을 벗어날 뿐만 아니라 교육적 혼란을 조장할 수 있다.

<표 3> 현행『독서와 문법』의 문장 체계[11]

문장	홑문장		
	겹문장	안은 문장	명사절을 안은 문장
			관형절을 안은 문장
			부사절을 안은 문장
			서술절을 안은 문장
			인용절을 안은 문장
		이어진 문장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

11) 현재 검인정교과서『독서와 문법』의 출판사는 <미래엔>, <비상교육>, <천재교육>, <교학사>, <창비>, <지학사>가 있다. 제시된『독서와 문법』의 겹문장 체계는 검인정교과서를 바탕으로 각 출판사의『독서와 문법』에서 공통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기본 겹문장 체계이다. 출판사마다 겹문장이 기술되어 있는 단원은 다음과 같다.
<미래엔> Ⅱ. 국어의 구조와 국어 생활, 3. 문장과 표현, (1) 문장의 짜임, 124-129쪽.
<비상교육> Ⅱ. 우리말의 구조, 3. 문장, (2) 문장의 짜임, 107-112쪽.
<천재교육> Ⅱ. 국어 구조의 이해, 3. 문장, (1) 문장의 짜임. 98-104쪽.
<교학사> Ⅱ. 국어 구조의 이해, 3. 문장, (1) 문장의 짜임과 정확한 문장, 122-130쪽.
<창비> Ⅱ. 국어 구조의 이해, 3. 문장, (1) 문장의 짜임, 128-133쪽
<지학사> Ⅲ. 국어의 이해와 탐구, 3. 문장, (1) 문장의 구조, 204-211쪽.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위 <표 3>은 현재 검인정교과서가 공통적으로 견지하는 기본 겹문장 체계이다. 제7차 국어과 교육과정의 『문법』 교사용 지도서에서는 종속절을 부사절로 볼 수 있다는 허용안을 함께 제시하는데 『독서와 문법』에서도 각 출판사 교사용 지도서의 기술을 통해 해당 견해를 확인할 수 있다.

(4) 종속적으로 이어진문장과 부사절을 가진 안은 문장을 구별하기는 매우 어렵다. 예를 들어 '바깥이 잘 보이게 창문을 열어라.'와 같은 문장을 종속적으로 이어진문장으로 보는 견해도 있고, 부사절을 가진 안은 문장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 문장의 종류는 어미의 종류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이 문장을 종속적으로 이어진문장으로 보게 되면 '-게'를 연결 어미로 보게 되고, 부사절을 가진 안은 문장으로 보게 되면 '-게'를 부사형 어미로 보게 된다. (미래엔:125)

(5) 실제로 학교 문법에서는 종속적 연결 어미에 의하여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들은 종속절로 보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도, 부사절로 보는 것도 허용하고 있다. 선행절(종속절)을 후행절 안으로 옮길 수가 있다는 점에서 해당 종속절은 부사절로도 볼 수 있다. (비상교육:112)

(6) 안은 문장의 체계 문제에서 가장 어려운 것은 이어진문장 가운데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을 '부사절을 안은 문장'으로 처리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중략) 학교 문법 체계 차원에서는 '-이'가 붙은 경우만이 부사절로 인정되겠지만, 이는 약속일 뿐이지 설명적 타당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다. 필자는 이 둘을 동일한 부사절로 처리할 수 있으리라 본다. '소리도 없이'가 후행절 속에 있는 것처럼, '내가 일찍 일어나면'도 후행절의 속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다. (천재교육:135)

(7) 안은 문장과 이어진문장의 구분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부사절을 안은 문장과 종속적으로 이어진문장의 구별이 매우 어렵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눈이 흔적도 없이 녹았다'와 같은 문장의 '흔적도 없이'를 이동시켜 '흔적도 없이 눈이 녹았다'와 같이 만들고 보면, '흔적도 없이'는 종속절이 되기도 하고 부사절이 되기도 한다. (교학사:129)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현행『독서와 문법』에서는 <표 3>의 겹문장 체계를 원칙안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교사용 지도서에서 부사절과 종속절의 구분이 어려우며 문장을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종속절로도, 부사절로도 볼 수 있음을 언급하고 있다. 이는 종속절과 부사절을 하나의 범주로 묶을 수 있는 가능성을 말하는 것으로 원칙안 외에 허용안도 복수로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를 정리하면 <미래엔>, <비상교육>, <천재교육>, <교학사>에서 겹문장 체계에 대한 공통적인 입장으로 <표 4>의 체계도 인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4> 문장 허용 체계

<table>
<tr><td rowspan="7">문장</td><td colspan="3">홑문장</td></tr>
<tr><td rowspan="6">겹문장</td><td rowspan="5">안은 문장</td><td>명사절을 안은 문장</td></tr>
<tr><td>관형절을 안은 문장</td></tr>
<tr><td>부사절을 안은 문장</td></tr>
<tr><td>서술절을 안은 문장</td></tr>
<tr><td>인용절을 안은 문장</td></tr>
<tr><td>이어진 문장</td><td>대등하게 이어진 문장</td></tr>
</table>

<표 4>는『문법』에서 제시한 겹문장 체계의 허용안과 같다. 이는 국어학계의 보편적인 견해라기보다는 제7차 국어과 교육과정에서 선택된 문장 체계를 '원칙안'으로 하고 그간의 국어학계의 주된 성과를 '허용안'으로 제시한 것이다. 제7차 국어과 교육과정에 의거한 국정 교과서인『문법』은 이후 발행된『독서와 문법』의 근간을 이룬다.[12] 교육적 유용성을 고려하지 않고 모호한 관점을 그대로 반영한 검인정교과서도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있지만, 국어과 교육과정에서 겹문장 체계에 관해 복수의 관점을 제시하고 있는 것을 근본적인 원인으로 꼽을 수 있다.

<창비>에서는 '종속절과 부사절의 문법적 지위'에 관하여 교과서는 물론 교사용 지도서에서도 별다른 설명이 제시되고 있지 않다. 이는 어떤 검인정교과서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학습자 간 서로 다른 지식 체계가 형성될 수 있는 문제점을

12) 2009 개정 교육과정(고시 제 2012-14호)의 국어 문법 영역의 집필 기준에서는 제7차 교육과정에 준하여 집필한다는 내용이 따로 서술된 것은 아니다. 다만 2007 개정 교육과정의 국어과 집필 기준에 따르면 문법 용어는 제7차 교육과정의『문법』을 참조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더불어 2007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의 교과서와 현행 국어과 교육과정의 관점이 별다르게 수정되지 않았음을 감안할 때 겹문장 내용 체계는 대동소이한 것으로 판단된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내포한다. 또한, 교사용 지도서에서 원칙안과 허용안을 복수로 제시하여 교사가 선택하도록 하는 것은 교사의 관점에 의해 학습자 간 서로 다른 지식 체계가 형성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이는 것으로 교육적 유용성이 고려되었는지에 대한 의문이 따른다. 더불어 교사가 복수의 체계를 제시하는 것은 국어학적 쟁점을 학습자들에게 직접 제시하는 것으로서 학습적 위계에 알맞지 않다.

한편으로 『독서와 문법』에서 종속절과 부사절을 구분하도록 하는 학습활동을 살펴보면 교육적 유용성이 충분히 고려되지 못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8) <지학사> 종속절과 부사절 구분 문제 (210쪽)

4.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과 부사절의 관계에 대해 탐구해 보자.

㉠ 눈이 와서 길이 미끄럽다. ㉡ 길이 눈이 와서 미끄럽다.

(1) 각 문장에 사용된 '눈이 와서'를 현재 문법에서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알아보자.

(2) 만약 두 문장의 '눈이 와서'를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과 부사절 가운데 한 가지로 처리한다면 어느 쪽이 좋을지 말해 보자.

(9) <비상교육> 종속절과 부사절 구분 문제 (112쪽)

2. 다음 밑줄 친 부분을 종속절과 부사절로 구분해 보자. 구분하는 데 어려운 점은 무엇인지 정리해 보자.

㉠ 장미꽃이 예쁘게 피었네.
㉡ 예쁘게 장미꽃이 피었네.
㉢ 그는 배가 고파서 물을 들이켰어.
㉣ 배가 고파서 그는 물을 들이켰어.

검인정교과서의 종속절과 부사절 구분 문제는 대개 절의 위치로 해결하도록 제시하고 있다. 종속절과 부사절을 문장 내 '위치'만을 기준으로 하여 분류하게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한다면 학습자에게 오히려 오개념을 만드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겹문장을 이루는 절은 다양한 문장 성분으로 사용되고 경우에 따라 문장의 도치 또한 자연스러워 위치만으로 절의 종류를 구분하는 것은 개념적 혼란을 양산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지학사>에서는 종속절과 부사절의 구분이 모호하므로 이러한 체계를 선택하는 것도 장점이 있음을 덧붙여 설명하고 있다. 원칙안과 허용안의 복수 제시 후 학습자의 선택을 요구하는 것은 교육적인 관점이 전혀 고려되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종속절과 부사절의 문법적 지위에 관한 문제는 국어학계에서도 쉽게 결론을 내리지 못하는 오랜 쟁점으로 두 체계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하는 것은 고등학교 학습자 수준에 적합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활동은 일부 검인정교과서에만 한정되어 있어 이를 학습한 학생과 그렇지 못한 학생 간에 서로 다른 계제의 지식이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 단순히 검인정교과서에서 선택적으로 제시되는 것을 넘어 학습자들의 경험적 지식 간의 차이도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종속절과 부사절의 구조를 파악하고 그 유사성을 탐구하는 것은 필수적인 학습 과정으로 선정되어야 한다. 학습자의 탐구를 장려하는 것은 인지 경계의 폭을 확장할 수 있다는 이점을 갖는다. 더불어 구조적·의미적 관계 양상을 파악하고 문장에 대한 결론을 내림으로써 언어 구조적 지식을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계기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종속절, 부사절의 탐구 활동을 검인정교과서의 선택 차원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필수적인 탐구과정으로 제시해주는 것이 좋을 것이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표 5> 검인정교과서 겹문장 '표현 효과' 교육 내용

<table>
<tr><th>출판사</th><th>교육 내용</th></tr>
<tr><td>미래엔
(127쪽)</td><td>
2 문장 짜임의 표현 효과
탐구
• 문장의 길이에 주목하여, (가)와 (나)의 표현 효과에 대해 알아보자.
(가) 나라의 일꾼으로서 최선을 다하여 열심히 일하고 자기 책임을 다하고 있는 우리 젊은이가 여기 모였습니다.
(나) 나라의 일꾼으로서 최선을 다하는 우리는 열심히 일하고 자기 책임을 다하는 젊은이입니다. 이런 우리들이 여기에 모였습니다.
(가)는 한 문장으로 이루어져 있다. 하지만 그 안에 많은 내용을 담으려다 보니 문장의 길이가 길어졌고, 전달하려는 의미가 모호해졌다. 이럴 때에는 (나)와 같이 긴 주어의 일부를 끊어서 간결하게 만들고, 나머지 부분은 서술어 쪽으로 보내 문장의 의미를 명확하게 만들 수 있다.
글을 쓸 때에도 문장의 길이를 조절함으로써 표현 효과를 높일 수 있다. 짧고 단순한 홑문장은 빨리 진행되는 변화를 나타내거나 대상과 생각을 뚜렷하게 전달하는 데 알맞으며 강조의 효과가 있다. 둘 이상의 절로 이루어진 겹문장은 관찰되는 대상이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느낌과 생각을 상세히 전달하고 논리적인 관계를 설명하는 데 적절하며, 자세한 설명을 할 수 있다.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을 문장으로 서술할 때에는 이러한 홑문장과 겹문장의 표현 효과를 염두에 두고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더 알아보기
문장 짜임에 따른 표현 효과
홑문장을 주로 사용할 때
글쓴이의 생각이 간결하게 드러나 경쾌한 느낌을 줄 수 있으나 자칫하면 내용이 흩어져 보일 수 있음.
겹문장을 주로 사용할 때
문장들 사이의 관계가 긴밀해져서 보다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으나, 너무 길어지면 의미 전달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td></tr>
<tr><td>비상교육
(112쪽)</td><td>
3. 다음 |보기 1|과 |보기 2|를 보고 활동해 보자.
|보기 1|
㉠ 앞에는 개울이 흐르고 있다. ㉡ 그 개울 물빛은 매우 투명하다.
㉢ 뒤에는 살구나무가 서 있다. ㉣ 살구꽃은 흐드러지게 피어 있다.
|보기 2|
〈겹문장 만들기 순서〉
1단계 ㉠+㉡, ㉢+㉣
2단계 [㉠+㉡] + [㉢+㉣]
(1). |보기 1|을 |보기 2|에 맞추어서 하나의 겹문장으로 바꾸어 보자.
(2). (1)에서 바꾼 겹문장에 어떤 안긴문장이나 이어진문장이 사용되었는지 확인해 보고 그 표현 효과를 생각해 보자.
</td></tr>
</table>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교학사 (129쪽)	**문장의 변환과 표현 효과** 탐구 1. 다음 두 표현이 일반적인 문장과 어떻게 다른지 생각해 보자. ㄱ. 보라, 청춘을. – 민태원, '청춘 예찬' ㄴ. 그리고 진정한 사랑은 곳이 없다. – 한용운, '이별' 2. 다음 예문을 읽어 보고, 어떤 표현 효과가 느껴지는지 말해 보자. ㄱ. 비가 내린다. 바람이 분다. 창문이 흔들린다. 낙엽이 떨어진다. ㄴ.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어서, 창문이 흔들리고 낙엽이 떨어진다. 우리는 실제 언어생활에서 다양한 형태의 문장을 사용한다. 상황에 따라 혹은 의도적으로 문장 성분의 순서를 바꾸거나 특정 문장 성분을 생략하기도 하고, 홑문장과 겹문장 등 문장의 짜임에 변화를 주어 표현하기도 한다. [탐구]에서 '보라, 청춘을'은 목적어와 서술어의 어순 변화를 통해 '청춘을'을 강조하는 효과를 준다. "그리고 진정한 사랑은 곳이 없다."는 '곳'의 의미를 한정하는 성분인 관형어를 생략하여 독특한 느낌을 주고 있다. '비가 내린다. 바람이 분다. 창문이 흔들린다. 낙엽이 떨어진다.'와 같은 홑문장의 나열은 문장이 연결되지 않아 간결하고 명료한 느낌을 준다. 반면,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어서 창문이 흔들리고 낙엽이 떨어진다."는 인과 관계가 잘 드러나 논리적으로 느껴진다. 이렇듯 우리는 표현 효과를 위해 다양한 문장의 변환을 시도할 수 있다. 그러나 문장 성분의 지나친 생략이나 과도한 겹문장의 사용은 분명한 의미 파악에 방해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자신의 표현 의도와 글의 특성 및 대화 상황에 알맞은 문장을 사용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지학사 (211쪽)	5. 다음 네 문장을 한 문장으로 바꾸어 보고, 그 결과를 바꾸기 전과 비교하여 문장 짜임의 변화가 어떤 표현 효과의 차이를 가져오는지 말해 보자. 갑자기 그가 보고 싶었다. 무작정 버스를 타고 그의 사무실로 갔다. 설레는 마음으로 사무실 문을 열었다. 그는 사무실에 없었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표 5>는 각 검인정교과서에서 제시한 겹문장과 관련한 '표현 효과'의 교육 내용이다. 결론적으로 홑문장이나 겹문장을 사용함에 따라 달라지는 표현적인 의미나 홑문장, 안은 문장, 이어진 문장을 사용함에 따라 형성되는 문장 균형감에 대해 지도하고 있다. 겹문장 교육 내용이 이대로 그치는 것은 겹문장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나 이해가 아닌 단순히 표상되는 의미만을 이해하는 수준에 그쳐 학교 문법의 교육적 목적을 충실히 이행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학습자는 탐구 활동을 수행함으로써 겹문장 하위 유형의 구분 기준을 파악하고 자신이 사용하는 겹문장을 구조적·의미적 요소로 구성된 유기체로서 생각해 볼 수 있도록 구성되어야 할 것이다. 즉, 언어 주체가 표현하고 이해하는 과정에서 사용되는 문법 지식이 정확성과 규범성을 가지고 여러 요인을 고려하여 문장 형성에 효과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지식 체계가 교육 내용으로 마련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학습자를 고려한 교육적 유용성에 알맞은 교육 방안을 구안하기 위해 정합성을 갖춘 겹문장 체계를 모색하여 학교 문법에 하나의 기본 체계를 편성하는 방향으로 논의하되, 선정된 '기본안'을 바탕으로 겹문장 탐구 과정에 주목하여 그 교육 내용을 설계할 것이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Ⅲ. 겹문장에 관한 통사적 논의

국어 겹문장 교육을 논하기 위해서는 대상이 되는 겹문장, 그리고 그 복합적 성격과 관련되는 다양한 개념을 고려하여 체계적인 정의를 내릴 필요가 있다. 그러한 과정의 일환으로 국어 겹문장을 국어학에서 문법적으로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10) 겹문장 체계 하위 유형에 대한 쟁점
  가. 종속절, 대등절, 부사절 각각 독립적 문법 지위를 인정하는 견해
  나. 종속절을 부사절로 보는 견해
  다. 종속절, 대등절 모두 부사절로 보는 견해

(10)에서 제시된 겹문장과 관련한 쟁점의 해답을 찾기 위해 먼저 이어진 문장과 안은 문장을 구분하는 개념으로 작용하는 '접속'과 '내포'의 의미와 구조에 대해 검토해볼 것이다. 그 후 대등절과 종속절, 부사절을 변별시키는 기준으로 1. 대칭성 및 교호성, 2. 선행절의 위치 이동, 3. 대용화, 4. 연결소 되풀이 등 4가지 '필수 특성'[13]을 들어 대등절, 종속절, 부사절의 각각의 범주를 정립하고자 한다. 이 연구에서의 '정립'은 新造가 아닌 기존의 이론을 정리하고 교육적 유용성을 고려하여 학교 문법의 지식 내용으로 적용하기에 가장 알맞은 체계를 추론하는 데 그 의의를 갖는다.

13) 이관규(1999)에서는 대등문(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의 필수적인 통사적 특성으로 대칭성 및 교호성, 선행절 위치 이동, 대용화 제약 현상, 연결소 되풀이 등을 꼽았다. 그는 네 가지 기준을 바탕으로 대등절, 종속절, 부사절의 설정 문제에 관한 논의를 전개하였으며 종속절이나 부사절은 대등절 고유의 통사적 특성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판단하고, 위 네 가지 변별 기준을 대등절 고유의 통사적 특성으로 보았다. 이관규(1999), 「대등문·종속문·부사절 구문의 변별 특성」, 『선청어문』 22, 서울대학교 국어교육과 참조.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1. 접속과 내포의 의미와 구조

1) 접속과 내포의 의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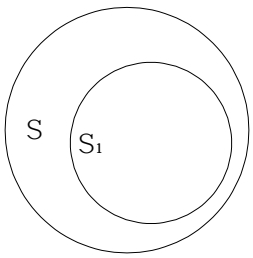
학교 문법에서는 겹문장 생성 과정을 홑문장과 홑문장이 이어지는 것, 그리고 홑문장이 다른 문장 속의 한 성분이 되는 것으로 기술한다. 전자의 과정을 거친 문장을 '이어진 문장', 후자를 '안은 문장'으로 지칭한다. 여기에서 '이어짐'은 하나의 문장이 다른 문장과 이어지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접속'의 개념으로 설명된다. 반면 '안음'은 한 문장이 다른 문장을 한 성분으로 갖는 것으로 곧 복합문을 생성하는 통사적 과정으로서 '내포'로 설명된다.

이어진 문장에서 '이어짐'은 다시 여러 개념으로 나뉜다. 남기심·고영근(1985)[14]에서는 대등문을 어떤 결합 과정을 거치느냐에 따라 순접 대등문과 이접 대등문으로 구분하였으며 종속문을 이루는 관계 유형으로 조건·원인·결과·바뀜·더해감·의도·목적·필연(그래야 함)·배경·정도 등 다양한 의미적 요소를 제시하고 있다.[15]

접속과 내포는 문장이 확대되는 절차로서 접속과 내포의 기능이 실현됨에 따라 문장 형태와 정의가 결정된다. 국어의 접속과 내포의 구조를 간단하게 보이면 다음과 같다.

(11) ㄱ.

ㄴ.



내포절의 유형은 기본적으로 상위문에서 어떤 통사적 범주로 기능하는 지에

14) 남기심·고영근(1985),『표준국어문법론』, 앞의 책, 392쪽.

15) 종속문의 하위분류에 대해서는 선행절과 후행절의 의미 관계에 따라 다양한 견해가 있다. 권재일(1985)에서는 인과, 조건, 목적, 평가, 결과, 첨의 관계 등으로 구분하였고, 서정수(1994)에서는 상황, 계기 한정, 까닭, 조건, 시간, 양보, 목적, 결과, 전환, 첨가, 점증, 비교, 반복 등으로 구분하였다. 현행 학교 문법에는 남기심·고영근(1985)의 견해를 따르나 이 또한 국어학적으로 명확히 검증된 견해는 아니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따라 분류되고 있다. 한 성분이 된다는 것은 곧 통사적 범주로서의 자격을 갖는 것으로 내포절은 명사, 관형사, 부사 등과 같은 품사 범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그러나 내포절의 하위 유형인 인용절의 경우 이러한 내포의 문법적 기능 면에서 설정 문제를 가진다.

내포절에서 명사절, 부사절, 관형사절, 서술절은 모두 문장 내에서 한 성분으로 기능하고 있다는 점에서 통사적 분류상의 문제가 없으나 인용절은 통사적 성분이라기보다 의미 기준이 적용된 분류로서 내포절 유형이 이중 기준으로 분류되고 있다는 문제점을 갖는다. 허웅(1984)[16]에서도 '인용 마디'를 '안긴 마디'의 하위 범주로 설정하고 있으며 이는 인용절을 의미 기준으로 분류한 것으로 통사적 기준이 적용된 것은 아니다. 이와 관련하여 남기심·고영근(1985)에서는 "인용절은 그 통사적 특징이 독특하여 별도로 다루고 있으나 기능으로 보아서는 부사어에 가깝다"[17]고 설명하고 있다. 내포절의 범주로 묶여 있는 절들도 어떤 분명한 통사적 기준이 아직 마련되지 못한 것이다.

(12) 우리 학계에서는 이상하게도 종속절이 따로 있고 그와 별개로, 그와 대등한 층위에 절이나 관형사절 및 부사절이 있는 것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었다. 부사절이란 달리 말하면 부사종속절(adverbial subordinate clause)이다. 어떤 절이 부사절이라면 그것은 종속절이다. 종속절이 상위어이므로 그 하위어인 부사절은 자동적으로 종속절을 함의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우리는 어떤 절을 두고 그것이 부사절인지 종속절인지를 가리지 못해 고심들을 해 왔고, 이 절은 부사절로 보내고 저 절은 종속절로 보내노라고 힘든 결정을 발표하는 따위의 황당하기 이를 데 없는 일들을 해 오고 있었던 것이다.[18]

위 (12)는 접속과 내포의 의미가 동일하다고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나오는 지적으로 문장 구조에 작용하는 개념들이 어떤 통사적 특성이 발현되어 생긴 것이 아닌 의미 관계로 구분되고 있음을 방증한다. 실로 학교 문법에서도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은 선행절과 후행절이 나열·대조 등의 의미 관계를 갖는 것으로, 종속

16) 허웅(1984),『국어학-우리말의 오늘 어제』, 샘문화사, 265쪽.
17) 남기심·고영근(1985), 앞의 책, 386쪽.
18) 이익섭(2003), 앞의 책, 36-37쪽.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적으로 이어진 문장은 선·후행절의 의미가 독립적이지 못하고 종속 관계를 갖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어[19] 이어진 문장의 구분 또한 선행절과 후행절의 의미 관계로 변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유현경(2002)에서는 내포의 근본적인 기능을 전성, 곧 용언이 다른 품사의 기능을 하기 위해 전성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을 만드는 어미를 부사형 어미로 보아 접속의 기능은 부사의 자리에 용언을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보았다. 즉, '접속'은 어미가 용언을 다른 품사로 전성시키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결과'인 것이지 어떤 특정 기제가 작용한 '과정'이 아닌 것이다.

접속과 내포를 실현시키는 문법 기질은 어미로서 어말 어미가 용언에 붙어서 이어진 문장이나 안은 문장을 이룬다. 이어진 문장이나 안은 문장 모두 어미가 용언 끝에 붙어 형성되기 때문에 형태적으로는 구분이 어렵다는 문제를 가진다. 접속과 내포는 서로 다른 속성으로 정의되지만 실제 문장 확대 과정에서의 접속과 내포는 동일한 위치의 어말 어미로 실현되고 있다. 따라서 접속과 내포는 그 구분을 문맥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어려움을 갖게 되는 것이다. 한편으로 이는 접속과 내포가 하나의 범주로 묶일 수 있다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이어진 문장의 종속절과 안은 문장의 부사절을 하나로 묶을 수 있다는 이론적 가능성을

---

19) 이는 학교 문법이 기본적으로 견지하는 입장으로 검인정교과서『독서와 문법』에서 공통적으로 설명되고 있다. 그 내용을 서술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의미 관계가 대등한 두 홑문장이 이어진 문장을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이라고 한다.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에서 앞 절과 뒤 절은 나열, 대조 등의 의미 관계를 갖는다. 앞 절과 뒤 절의 의미가 독립적이지 못하고 종속적인 문장을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이라고 한다." 이삼형 외(2014),『독서와 문법』, 지학사, 208쪽-209쪽.
2.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은 앞 절과 뒷 절의 의미가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을 말한다. 이어진문장은 각각 '나열', '대조', '선택'의 대등적 의미 관계를 가진다.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은 앞 절과 뒷 절의 의미가 독립적이지 못하고 종속적인 관계에 있는 문장을 말한다." 한철우 외(2014),『독서와 문법』, 교학사, 128쪽-129쪽.
3. "대등하게 이어진문장은 주로 사실을 나열하거나 대조할 때 쓰고, 종속적으로 이어진문장은 앞 절이 뒤 절의 이유나 조건 등을 담고 있을 때 쓴다." 윤여탁 외(2014),『독서와 문법』, 미래엔, 125쪽.
4.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은 앞 절이 뒤 절에 대해 '나열', '대조', '선택' 등의 대등한 의미 관계로 해석되며, (중략)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은 앞 절이 뒤 절에 대해 '배경', '원인', '조건', '양보', '결과', '목적'등의 종속적인 의미 관계로 해석된다." 박영목 외(2014),『독서와 문법』, 천재교육, 101쪽.
5. "대등적으로 이어진 문장에서 앞뒤의 절은 '나열'과 '대조' 등의 의미 관계를 가진다. (중략) 앞의 절의 의미가 뒤의 절의 의미에 종속되는 문장을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이라고 한다." 이도영 외(2014),『독서와 문법』, 창비, 132쪽.6. 이어진문장은 두 개의 홑문장이 대등한 자격으로 이어지는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과 앞의 홑문장이 뒤에 종속적으로 연결되는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으로 나눌 수 있다. 이관규 외(2014),『독서와 문법』, 비상교육, 109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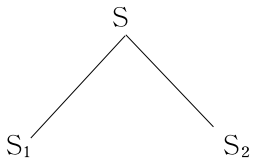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마련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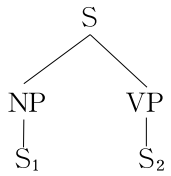
2) 접속과 내포의 구조

다음으로 겹문장의 하위 유형을 구분하는 기저로 작용하는 접속과 내포의 구조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그 구조로서 먼저 권재일(1992)[20]의 견해를 들 수 있다.

(13) 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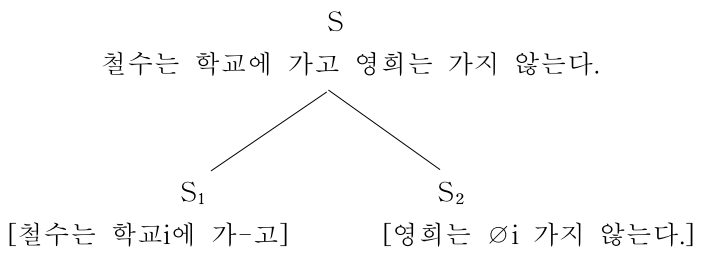


ㄴ.



여기서 복합문, 곧 겹문장은 하나의 S가 하나 이상의 S를 직접 혹은 간접으로 관할하는 구조를 보인다. S는 하위문을 관할하는 상위문을, S_1 , S_2 는 관할되는 하위문을 뜻한다. 상위문이 하위문을 관할하는 방법으로는 두 가지로 제시된다. (13ㄱ)과 같이 상위문이 하위문을 다른 교점을 거치지 않고 직접 관할할 경우 '접속문 구성', 상위문이 하위문을 명사구나 동사구의 교점을 통해 간접 관할하는 (13ㄴ)의 경우를 '내포문 구성'이라 하여 S_1 , S_2 이 NP에 내포되면 '명사구 내포문', VP에 내포되면 '동사구 내포문'으로 보았다.

(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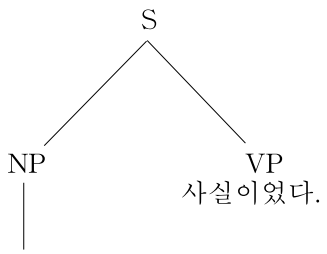
20) 권재일(1992), 『한국어통사론』, 민음사, 214쪽.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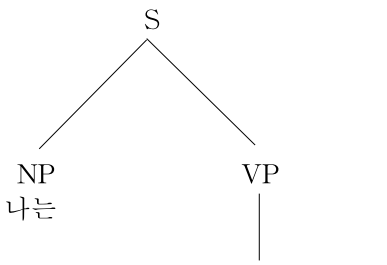
먼저 접속문의 구조를 살펴보면 ‘철수는 학교i에 가-고, 영희는 ∅i 가지 않는다’를 구조화해 볼 때 S_1 인 ‘철수는 학교i에 가고’와 S_2 인 ‘영희는 ∅i 가지 않는다’가 대등하게 연결되고, 상위문 ‘철수는 학교에 가고 영희는 가지 않는다’에 직접 관할되고 있어 접속문 구성 구조가 (13ㄱ)과 동일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15) ㄱ. [[철수가 학교에 갔음]이 사실이었다.]
ㄴ. [나는 [철수가 학교에 갔음]을 알았다.]

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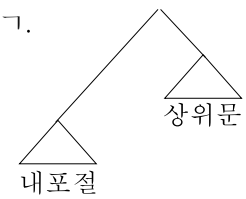
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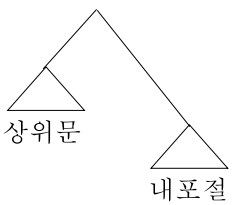
다음으로 내포문 구성을 살펴보면 (15ㄱ)에서 S_1 이 NP에 내포되고 있으므로 ‘명사구 내포문’으로 볼 수 있다. 명사구 내포문은 주어의 명사구로 쓰이는 경우와 목적어를 비롯한 다른 문장 성분으로 쓰이는 경우가 존재하는데, (15ㄴ)은 목적어로 쓰인 명사구로서 VP에 내포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위에서 제시한 (13)의 내포문 구조와 유사하다.

다음 (16)에서 보이는 구조는 김정대(2011)의 견해를 바탕으로 내포절과 상위문의 계층 구조를 도식화한 것이다. (16)에서 보이는 구조는 (15)에서 보이는 간접 관할의 계층 구조와 유사하다.

(16) 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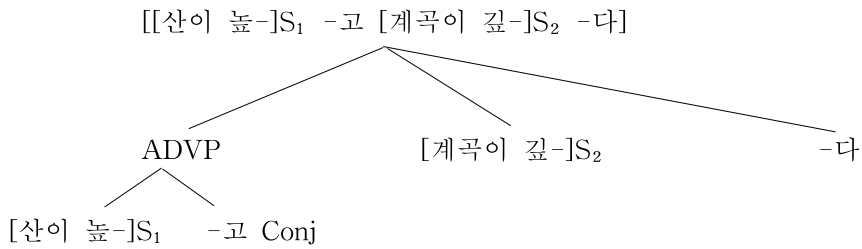
ㄴ.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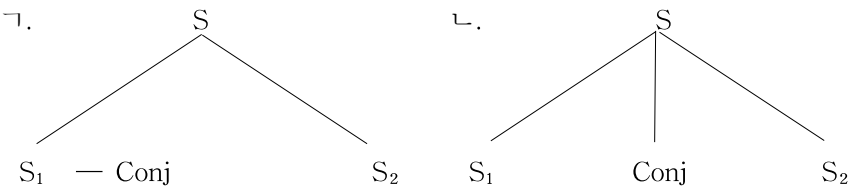
대개 접속과 내포의 구조에 관한 논의는 대등접속문(대등하게 이어진 문장)과 종속접속문(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의 구조적 차이를 모색하는 것을 중점으로 진행되어 왔다. 이에 관해 이익섭·임홍빈(1983)은 대등접속문의 구조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17)



먼저 위 구조는 대등접속문의 선행절을 부사절(ADVP)로 파악하고 있다. S_1이 부사절이 될 경우 후행절인 S_2 는 내포, 즉 종속되는 관계 양상을 보여야 한다. 그러나 대등접속문의 경우 선행절과 후행절의 관계를 종속 혹은 내포의 관계로 파악하기에는 무리가 따르며, 종속적인 관계 유형으로 표상하면서 대등접속문으로 처리하기에는 반론의 여지가 다분하다. 따라서 대등접속문의 구조를 (17)로 설정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른다.

(18)



(18ㄱ)은 유현경(1986)[21]이 제시한 대등접속문의 구조로 접속 어미가 선행절에 붙어 함께 움직이기 때문에 형태적으로는 (18ㄱ)이 적절하지만, 이 관점에서는 종속접속문과 대등접속문의 표상되는 차이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18ㄴ)을 기저 구조로 본다고 하였다. 실제로 대등접속문의 접속 어미(Conj)는 선행절 속 동

21) 유현경(1986), 앞의 논문, 101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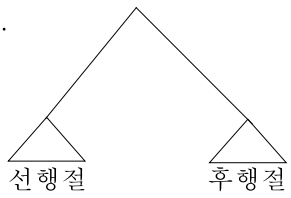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사와 결합하여 이동하기 때문에 표층 구조는 (18ㄱ)을 보이지만 의미와 통사적 기준을 고려하면, (18ㄴ)과 같이 접속 어미는 독립성을 갖는 것으로 선행절과 분리된 형태를 그 근본적인 기저 구조로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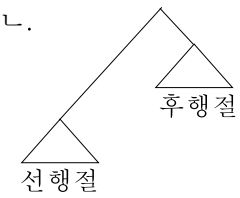
(19) ㄱ. 관태는 집i에 가-고 수민이는 ∅i 가지 않는다.
→ㄱ′. 수민이는 집i에 가지 않-고 관태는 ∅i 간다. (ㄱ=ㄱ′)
ㄴ. 산이 높-고 계곡이 깊다.
→ㄴ′. 계곡이 깊-고 산이 높다. (ㄴ=ㄴ′)

(19)는 ㄱ→ㄱ′, ㄴ→ㄴ′으로 바꾸어도 모두 문장이 성립한다. 그뿐만 아니라 의미의 진리조건도 동일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것은 접속 어미가 선·후행절의 영향 관계없이 독립되어 있다는 것을 증명한다. 이러한 관점의 하나로 다음의 견해를 들 수 있다.

(20) ㄱ.



ㄴ.



김정대(2011)는 (20ㄱ)을 대등접속문, (20ㄴ)을 종속접속문의 구조로 설명하고 있다. 대등접속문은 선행절과 후행절이 '대등'한 관계 양상을 나타내기 때문에 선행절과 후행절을 동일한 계층으로 표시한 반면, 종속접속문은 선행절이 후행절에 '종속'되는 관계로 파악하여 더 낮은 계층을 부여하여 구조화하였다.

대등접속문의 구조를 설명하는 견해들은 대개 문장의 선행절과 후행절을 동일한 계층으로 구조화한다. 이 연구에서도 마찬가지로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의 구조를 선행절과 후행절이 동일한 위계적 규율을 갖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다음의 구조를 갖는 것으로 판단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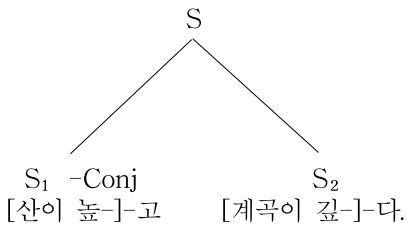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21) ㄱ. [[[산이 높-]고] [계곡이 깊-]]-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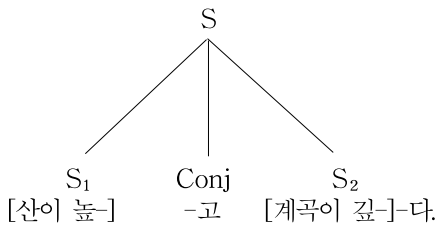
→ 표층: [[S_1 -Conj]-[S_2]]

심층: [[S_1]-Conj-[S_2]]

ㄴ. 표층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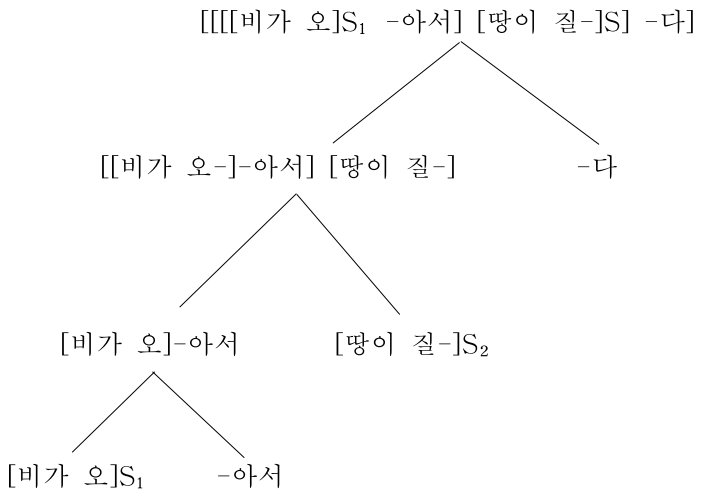


ㄷ. 심층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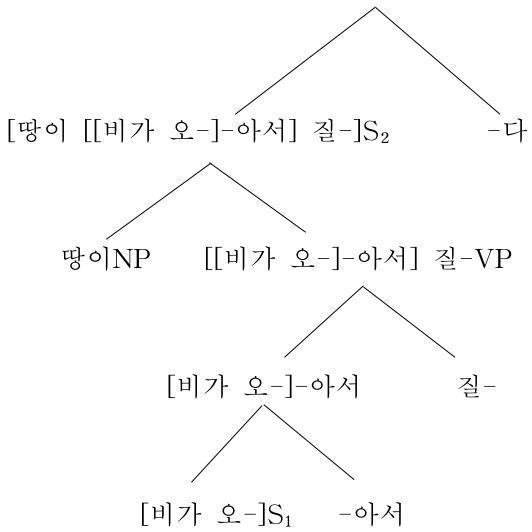
한편으로 학교 문법에서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의 예로 가장 빈번하게 제시되는 문장을 바탕으로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의 구조를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22) ㄱ.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ㄴ. [[땅이 [[[비가 오-]S_1 -아서] 질-]]S_2 -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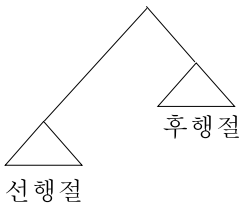


(22ㄱ)은 선행절 '비가 오-'가 접속 어미 '-아서'와 만나 접속 어미구가 되고 후행절에 종속되는 관계 양상을 보인다. 이때 선행절은 후행절에 종속되는 형태를 보이기 때문에 선행절이 후행절보다 낮은 계층으로 구조화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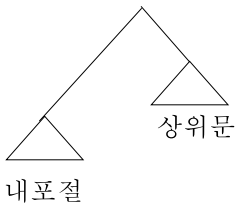
(22ㄱ)은 선행절을 후행절의 주어 뒤로 이동시킨 것으로, (22ㄴ)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22ㄴ)을 분석하면 S_1 이 S_2 의 동사구에 결합하여 S_2 를 이룬다. 여기서 S_1 이 S_2 동사구의 의미를 한정하면서 의미상으로 종속되므로 S_2 보다 낮은 구조적 위계를 설정할 수 있다.

논의를 바탕으로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을 간단하게 구조화하면 선행절의 이동과 무관하게 (23ㄱ)의 구조를 갖는 것을 파악할 수 있다. 앞서 논의를 참조하여 내포문 구조도 함께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23) ㄱ. 종속접속문



ㄱ. 내포문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23ㄱ)과 (23ㄴ)을 통해 도식화된 종속접속문과 내포문의 구조를 비교해 보면 '선행절-후행절'이 '내포절-상위문'으로 그 명칭만 달리할 뿐 동일한 구조를 보이고 있음을 인식할 수 있다. 즉 대등접속문의 구조는 선행절과 후행절이 동일한 계층에 위치하여 동일한 관계 유형을 보이는 반면 종속접속문은 내포문과 그 구조가 동일한 구조적 양상을 띠고 있는 것이다. 이는 대등접속문과 종속접속문을 같은 범주로 처리하기에 어렵다는 근거가 될 뿐만 아니라 종속접속문과 내포문을 동일한 범주로 분류할 수 있는 이론적 전제가 된다.

2. 대등절과 부사절

학교 문법에서는 대등절을 부사절의 하위 범주로 포함할 수 있음을 밝힌 바 있다.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을 부사절로 안은 문장의 하위 범주로 포함한 근거들은 논의의 깊이나 성격 및 결과, 내용에 있어 약간의 차이를 보인다. 이러한 견해는 대개 '어미의 형태적 동일성', '서법의 통사적 통일성', '문맥에 따른 의미적 동일성', '대등절의 접속 부사로의 대용화'[22]등을 그 근거로 들고 있다.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과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은 모두 같은 형태의 어말어미를 취하는 경우가 있으나 선·후행절의 의미 관계, 문맥, 서법에서 분명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위와 관련한 논의의 해답을 모색하기 위해 구조적 규율을 바탕으로 대등절과 부사절의 구분 근거를 알아볼 것이다. 이러한 논의는 대등절과 부사절의 문법적 지위를 판단하는 근거를 마련할 뿐만 아니라 하나의 겹문장 체계를 제안하기 위한 필수 과정이 된다. 우선 앞서 제시한 변별 기준은 다음과 같다.

(24) 가. 대칭성 및 교호성

22) 왕문용(1997),「대등접속문은 국어에 과연 있는가」,『어문학보』20, 강원대학교 국어교육과, 556쪽-557쪽, 560쪽, 왕문용·민현식(1993),『국어 문법론의 이해』, 서울:개문사, 167쪽 참조.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나. 선행절의 위치 이동

다. 대용화

라. 연결소 되풀이

먼저 (24가)의 '대칭성'은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의 특성으로 가장 많이 거론되고 있다. 이는 선행절과 후행절이 동일 층위에서 연결되어 서로 대칭되는 특성을 의미한다. '교호성'이란 겹문장을 구성하는 절을 아무 자리에나 위치시켜도 문법적·의미적으로 변화가 없는 특성을 뜻한다. "대칭성은 두 개의 홑문장이, 교호성은 두 개 홑문장은 물론이고 세 개 이상이 홑문장이 대등적으로 연결될 때도 나타나는 통사적 특성이다."[23]

(25) ㄱ. 철수가 집에 가고 영희가 학교에 간다.

ㄱ′. 영희가 학교에 가고 철수가 집에 간다.

ㄴ. [철수가 집에 가고], 영희가 학교에 가고, 기영이가 식당에 간다.

ㄴ′. 영희가 학교에 가고, 기영이가 식당에 가고, [철수가 집에 간다].

ㄷ. 철수가 밥을 먹거나 영희가 공부를 한다.

ㄷ′. 영희가 공부를 하거나 철수가 밥을 먹는다.

(25ㄱ, ㄴ)은 순접(나열) 대등문, (25ㄷ)는 이접(선택) 대등문의 예이다. (25ㄱ, ㄷ)은 (25ㄱ′, ㄷ′)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선행절과 후행절이 대칭성과 교호성의 관계 양상을 보이면서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을 구성하고 있다. 교호성은 단순히 두 개의 홑문장이 결합했을 때만 허용되는 것이 아니라 (25ㄴ′)와 같이 세 문장 이상 결합한 경우에도 교호성의 성질을 보인다.

(26) ㄱ. [말도 없이] 집으로 간다.

ㄱ′.* 집으로 가리 [말도 없다].

ㄴ. [짐승이 죽어서 가죽을 남기듯] 사람도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ㄴ′.! 사람도 죽어서 이름을 남기듯 [짐승은 죽어서 가죽을 남긴다].

23) 이관규(1999), 앞의 논문, 755쪽.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반면 (26ㄱ, ㄴ)은 부사절을 안은 문장으로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과는 다른 특성을 보인다. (26ㄱ′)에서 부사절과 후행절의 위치를 바꿀 경우 문장이 성립되지 않고 있다. 이는 부사절을 안은 문장의 선·후행절의 관계가 비대칭성을 띠고 있음을 나타낸다. 또한 (26ㄴ′)에서 문장 자체가 비문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의미가 달라지고 있어 (24가)를 적용하였을 때 대등절과 부사절은 서로 다른 속성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4나)의 '선행절의 위치 이동'은 대등절이 가진 명확한 구조적 특성 중 하나로 선행절이 후행절 속으로 이동할 수 없는 것을 의미한다.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에서 선행절은 위치이동의 제약을 받는 것에 비해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이나 부사절을 안은 문장의 선행절은 위치 이동이 비교적 자유롭다.

(27) ㄱ. 동생이 크고 형이 작다.
ㄱ′.* 동생이 형이 크고 작다.
ㄴ. 영철이가 공부를 하거나 민수가 공부를 한다.
ㄴ′.* 민수가 영철이가 공부를 하거나 공부를 한다.

(27ㄱ)은 순접 대등문으로 (27ㄱ′)에서 보는 것처럼 선행절인 '동생이 크고'가 후행절 속으로 삽입되었을 경우 비문이 되고 있다. 마찬가지로 (27ㄴ)의 이접 대등문에서도 '영철이가 공부를 하거나'의 선행절이 후행절에 들어갈 경우 문장이 성립되지 않고 있다. 순접 대등문과 이접 대등문 모두 선행절의 위치 이동이 제한되고 있는 것이다.

(28) ㄱ. [말도 없이] 집으로 간다.
ㄱ′. 집으로 [말도 없이] 간다.
ㄴ. [짐승이 죽어서 가죽을 남기듯] 사람도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ㄴ′. 사람도 [짐승이 죽어서 가죽을 남기듯]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반면 부사절을 안은 문장에서는 (28ㄱ′, ㄴ′)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선행절의 위치를 이동시켜도 문법적·의미적으로 모두 문장이 성립한다. 대등하게 이어진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문장과 부사절을 안은 문장은 (24나)에서도 어떠한 접점을 보이고 있지 않은 것이다.

(24다)의 '대용화'는 대용화 현상과 관련한 통사적 특성을 의미한다. 대용화란 일정한 문법 단위를 어떠한 단어로 대체될 수 있는 현상으로 대등절과 부사절을 변별할 수 있는 대용화 현상으로는 재귀화, 대명사화, 무형 대용화를 들 수 있다.

(29) ㄱ. [선아는 학교에 갔고] 선아의 동생은 집에 갔다.
ㄱ′.* [자기는 학교에 갔고] 선아의 동생은 집에 갔다.
ㄱ″.* [그녀는 학교에 갔고] 선아의 동생은 집에 갔다.
ㄱ‴.* [∅ 학교에 갔고] 선아의 동생은 집에 갔다.
ㄴ. [선아는 학교에 갔고] 자기의 동생은 집에 갔다.
ㄴ′. [선아는 학교에 갔고] 그녀의 동생은 집에 갔다.
ㄴ″. [선아는 학교에 갔고] ∅ 동생은 집에 갔다.

(29ㄱ)은 순접 대등문으로 선행절과 후행절에 공통적으로 '선아'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다. 선행절의 '선아'를 재귀화, 대명사화, 무형대용화를 할 경우 (29ㄱ′. ㄱ″, ㄱ‴)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비문이 되고 있다. 그런데 (29ㄴ′, ㄴ″)를 보면 후행절의 '선아'는 재귀화, 대명사화, 무형 대용화를 적용하여도 문장이 성립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순접 대등문의 대용화 현상은 순행 대용화는 가능하지만 역행 대용화는 허용되지 않는 것이다.

(30) ㄱ. [소용이는 공부를 하거나] 소용이가 밥을 먹는다.
ㄱ′.* [자기가 공부를 하거나] 소용이가 밥을 먹는다.
ㄱ″.* [그녀가 공부를 하거나] 소용이가 밥을 먹는다.
ㄱ‴.* [∅ 공부를 하거나] 소용이가 밥을 먹는다.
ㄴ. [소용이가 공부를 하거나] 자기가 밥을 먹는다.
ㄴ′. [소용이가 공부를 하거나] 그녀가 밥을 먹는다.
ㄴ″. [소용이가 공부를 하거나] ∅ 밥을 먹는다.

(30ㄱ)은 이접 대등문으로 선행절과 후행절에 공통적으로 '소용이'라는 표현이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나온다. 이접 대등문도 순접 대등문과 마찬가지로 선행절의 ‘소용이’에 재귀화, 대명사화, 무형 대용화를 적용하였을 때 비문이 되는 것을 (30ㄱ′, ㄱ″, ㄱ″′)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의 구조에서는 선·후행절의 의미 관계에 상관없이 재귀화, 대명사화, 무형 대용화가 순행적일 때만 허용되는 것이다.

(31) ㄱ. 지원이는 [지원이가 빠르게] 뛰어갔다.
ㄱ′.* 자기는 [지원이가 빠르게] 뛰어갔다.
ㄱ″.* 그는 [지원이가 빠르게] 뛰어갔다.
ㄱ″′. ∅ [지원이가 빠르게] 뛰어갔다.
ㄴ. 지원이는 [자기가 빠르게] 뛰어갔다.
ㄴ′. 지원이는 [그가 빠르게] 뛰어갔다.
ㄴ″. 지원이는 [∅ 빠르게] 뛰어갔다.

(31ㄱ)은 부사절을 안은 문장으로 선행절과 후행절에서 공통적으로 ‘지원이’라는 명칭이 나온다. 선행절이 후행절 속으로 이동한 형태이기 때문에 문맥 상 약간의 오해가 있을 수 있으나 ‘지원이가 빠르게’가 선행절 곧, 부사절이다. (31ㄱ′, ㄱ″)를 보면 각 후행절의 ‘지원이’를 재귀화, 대명사화 했을 때 문장이 성립되지 않고 있다. (31ㄱ″′)는 후행절을 무형 대용화한 것으로 비문이 되진 않으나 겹문장이 아닌 홑문장이 되고 만다. 반면 (31ㄴ′, ㄴ″, ㄴ″′)은 선행절의 ‘지원이’를 재귀화, 대명사화, 무형 대용화를 한 것으로 자연스러운 정문을 이루고 있어 부사절을 안은 문장은 순행 대용화는 불가능하지만 역행 대용화는 가능함을 알 수 있다.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의 경우 순행 대용화만이 가능함을 비교해볼 때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과 부사절을 안은 문장의 또 다른 구조적 차이로 제시할 수 있다.

(24라)에서의 ‘연결소 되풀이’는 연결소가 반복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은 선행절과 후행절의 연결소가 반복되어 나와도 비문이 되거나 의미가 변하지 않는다.

(32) ㄱ. 정효는 청소를 하고, 정현이는 밥을 하고 있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ㄱ′. 정효는 청소를 하고, 정현이는 밥을 한다.
ㄴ. 내가 할아버지 댁에 가거나, 친언니가 할아버지 댁에 가거나 한다.
ㄴ′. 내가 할아버지 댁에 가거나, 친언니가 할아버지 댁에 간다.

(32ㄱ)는 순접, (32ㄴ)은 이접의 기능을 하고 있다. (32ㄱ)를 보면 '-고'라는 연결 어미가 선행절과 후행절에 되풀이되어 나올 수 있음을 보이고 있다. (32ㄴ)에서는 '-거나'라는 연결 어미가 역시 선행절과 후행절에 되풀이 되어 나오고 있다. 이는 순접 대등문과 이접 대등문 모두 선행절과 후행절에 같은 연결 어미가 되풀이되어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한다. 한편으로 (32ㄱ′)과 (32ㄴ′)에서처럼 연결 어미가 뒤 절에서는 생략이 가능하다.

(33) ㄱ. [아무 말 없이] 진석이가 집에 간다.
ㄱ′.* [아무 말 없이] 진석이가 집에 가리 한다.
ㄴ. [게 눈 감추듯] 승관이가 먹어 치웠다.
ㄴ′.* [게 눈 감추듯] 승관이가 먹듯 치웠다.

(33ㄱ)과 (33ㄴ)은 부사절로 안은 문장으로 부사절 구문에서는 (33ㄱ′)과 (33ㄴ′)에서 보듯 선행절에 나타나는 연결소가 뒤 절에 올 경우 비문이 되고 있다. 결과적으로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과 부사절로 안은 문장은 같은 범주로 처리할 수 없는 명확한 차이가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곧, 대등절을 부사절의 하위 범주로 포함할 수 없다는 결론을 함의하는 것은 물론 국어학계에서 조차 꾸준한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학교 문법의 내용 체계로 편성하기에는 큰 무리가 따른다.

3. 종속절과 부사절

학교 문법에서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은 선행절과 후행절의 의미 관계가 독립적이지 못하고 서로 종속적인 관계를 갖는 문장이라고 정의하고 어떠한 의미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관계를 가지느냐에 따라 다양한 종속적 연결 어미가 사용된다고 보고 있다. 이는 구체적인 문법 기준이 아닌 의미 관계에 바탕을 두고 설정된 것으로서 선행절과 후행절이 연결되어 이어진 문장을 구성할 때 선행절과 후행절의 의미 관계를 '종속'으로 보고, 이에 따라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으로 체계화한 것이다.[24] 안은 문장에서 부사절과는 서로 다른 의미 기능을 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두 범주가 분리되어 설명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학교 문법에서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은 '-(으)면, -는데, -아/어서' 등의 연결 어미가 사용되고 안은 문장에서 부사절은 '-이, -듯이, -도록, -게'의 연결 어미를 취하는데, 여기서 부사절과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은 명확한 구분이 어렵다.

(34) ㄱ. 비가 와서 길이 질다.
ㄴ. 길이 비가 와서 질다.

(34ㄱ)문장을 남기심·고영근(1985)[25]에서는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으로 보았고 (34ㄴ)를 학교 문법에서는 부사절을 안은 문장으로 제시하고 있다. 남기심·고영근은 '-아/어서'를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에 사용되는 연결 어미로 보았고, 학교 문법에서는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과 부사절을 안은 문장에 모두 사용되는 어미로 본 것이다. 결국 '비가 와서'가 '길이 질다'의 앞에 위치할 경우 이어진 문장이, 중간에 위치할 경우 안은 문장이 된다는 모호한 설명이 된다.

이에 따라 앞서 논의와 같은 기준을 다시 적용하여 종속절과 부사절의 유사점 및 차이점이 무엇인지 논의하고자 한다.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의 예는 다음과 같다.

(35)[26] ㄱ. [도서관에 갔는데] 사람이 많았다.
ㄴ. [비가 와서] 땅이 젖었다.
ㄷ. [바람이 들어오게] 창문을 열었다.

24) 권재일(2012),『한국어문법론』, 태학사, 169쪽-179쪽 참조.
25) 남기심·고영근(1985), 앞의 책, 394쪽.
26) 박영목 외(2014),『독서와 문법』, 천재교육, 101쪽.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ㄹ. [도서관에 가려고] 집을 나섰다.

위의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들은 선행절과 후행절이 종속적인 의미 관계로 연결되어 겹문장을 구성하고 있다는 점에서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과 함께 이어진 문장의 하위 범주로 처리되고 있다. 그러나 부사절과 대등절을 구분해주는 변별 기준을 적용해 보았을 때 대등절과의 유사점을 나타내지 않는다.

(35′) ㄱ′. 사람이 많았는데 도서관에 갔다.
ㄴ′. 땅이 젖어서 비가 왔다.
ㄷ′. 창문을 여니 바람이 들어온다.
ㄹ′. 집을 나서 도서관에 갔다.

위 논의를 통해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은 선행절과 후행절이 대칭성을 띠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반면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은 선행절과 후행절이 대칭 관계를 갖고 있지 않다. 선행절과 후행절의 위치가 바뀌게 되면 (35′)과 같이 본래 문장의 의미가 달라지어 선행절과 후행절의 관계가 비대칭성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에서 선행절과 후행절의 관계가 대칭적임을 고려하면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과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을 하나의 문장 체계로 처리하는 것에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 다른 측면에서도 대등절과 종속절은 서로 다른 구조적 특성을 보인다.

(36) ㄱ. [도서관에 갔는데] 사람이 많았다.
ㄴ. 사람이 [도서관에 갔는데] 많았다.
ㄷ. 사람이 많았는데 [도서관에 갔다.]

(36ㄱ)은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의 예로 (36ㄴ)과 (36ㄷ)은 선행절 즉, 종속절을 후행절로 위치 이동한 문장으로 자연스럽게 이동하여 비문이 되거나 의미가 변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에서는 선행절이 후행절로 이동할 경우 비문이 되지만 종속절은 부사절과 마찬가지로 위치 이동의 제약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이 없는 것이다. 선행절의 위치 이동에서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과 부사절을 안은 문장은 유사한 속성을 띠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37) ㄱ. [온달의 아내가 공주이므로] 온달은 부마가 된다.
ㄱ′. [자기의 아내가 공주이므로] 온달은 부마가 된다.
ㄱ″. [그의 아내가 공주이므로] 온달은 부마가 된다.
ㄱ″′. [∅ 아내가 공주이므로] 온달은 부마가 된다.
ㄴ.* [온달의 아내가 공주이므로] 자기는 부마가 된다.
ㄴ′.* [온달의 아내가 공주이므로] 그는 부마가 된다.
ㄴ″.* [온달의 아내가 공주이므로] ∅ 부마가 된다.

위의 (37ㄱ)은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의 예로서 (37ㄱ′, ㄱ″, ㄱ″′)에서 선행절을 각각 재귀화, 대명사화, 무형 대용화를 시킬 경우 모두 정문이 되어 역행 대용화가 허용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37ㄴ, ㄴ′, ㄴ″)에서 후행절에 재귀화, 대명사화, 무형 대용화를 적용하였을 때 비문이 되고 있어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에서 순행 대용화가 불가능함을 보이고 있다. 이 역시 부사절과 종속절이 동일한 관계 양상을 보이고 있음을 증명하는 것으로서 부사절과 종속절의 한 범주로 묶일 수 있다는 국어학적 근거를 마련해 준다.

연결소 반복에서도 종속절은 부사절과의 유사점을 띤다.

(38) ㄱ. 철수가 설거지를 해야, 영희가 밥을 한다.
ㄱ′.* 철수가 설거지를 해야, 영희가 밥을 해야 한다.
ㄴ. 순이가 의사여서 철수는 행복하다.
ㄴ′.* 순이가 의사여서 철수는 행복해서 하다.

위 예문을 통해 확인되듯이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에서는 선행절에 나온 연결 어미가 후행절에 반복 사용될 경우 비문이 되고 있음을 보인다. 이처럼 변별 기준을 적용하여 분석해본 결과 종속절은 부사절과 속성과 기능 면에서 유사점을 보인 반면 대등절과는 분명한 차이점을 보이고 있다. 이는 학교 문법에서 겹문장의 하위 유형으로 대등절과 종속절을 한 범주로 처리하는 형태가 문법적 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류를 함의하고 있음을 증명한다.

한편으로 학교 문법에서는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을 선행절과 후행절이 의미 관계가 독립적이지 못하고 종속적인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부사절을 안은 문장도 그러한 분류 조건에 부합할 수 있는 관계 조건을 가진다.

(39) ㄱ. [불평 한마디 없이] 지훈이는 집안일을 하였다.
ㄴ. [아무도 모르게] 기부를 하였다.

(39) 모두 부사절을 안은 문장이다. 그런데 이들 선행절과 후행절이 갖는 의미 관계는 독립적인 것이 아닌 종속적인 관계를 갖는다고 볼 수 있다. 선행절이 후행절을 수식해주는 종속 형태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지훈이가 집안일을 하였다.'는 선행절인 '불평 한마디 없이'에 종속되고 있으며 마찬가지로 '기부를 하였다'도 '아무도 모르게'에 의미적으로 종속되고 있다. 종속적인 관계를 갖는 다는 점에서 이 문장들도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과의 별다른 유형적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종속절과 부사절의 특성이 중첩됨을 볼 때 종속절을 이어진 문장 영역에 놓이기에는 무리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어진 문장의 하위 유형으로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과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을 설정한 것은 분류상의 오류를 드러내는 것이다.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의 선행절, 즉 종속절은 이어진 문장의 통사적인 특징을 구성하는 독립적인 접속 성분으로 보기엔 어렵고 다만 후행절의 한 성분을 구성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에서 종속절이 한 성분의 역할을 수행한다면 부사절의 성질을 갖는다고 볼 수 있다. 실제로도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은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과의 구조적 통일성이 없으며 오히려 부사절을 안은 문장과 유사한 특성을 보인다.

결론적으로 종속절은 대등절과 함께 이어진 문장의 공통 범주로 처리하기엔 어려움을 보인다. 이와 비슷한 관점에서 현행 학교 문법에서는 종속절을 부사절의 하위 범주로 포함할 수 있다는 견해를 밝히고 있다.

(40)[27] ㄱ. 장미꽃이 [예쁘게] 피었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ㄴ. [예쁘게] 장미꽃이 피었네.

그러나 위의 두 예시를 비교하여 분석해 보면 그 견해의 모순점이 드러난다. (40ㄱ)은 학교 문법에서 보이는 부사절을 안은 문장의 예이며, (40ㄴ)은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의 예이다. 그런데 (40ㄱ)은 (40ㄴ)에서 앞 절이 이동된 형태로 볼 수 있다. (40ㄱ)에서 앞 절이 별다른 제약 없이 자유롭게 이동된 것을 고려하면, 두 문장을 서로 다른 유형의 문장으로 보기엔 어렵다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오히려 부사절을 안은 문장 내에서 부사절이 이동하는 통사적 현상이라고 규정하는 것이 종속절의 문법 현상을 이해하는데 올바른 설명일 것이다.

Ⅲ장의 논의를 종합해 보면 결과적으로 종속절을 대등절과 같은 범주로 처리하여 이어진 문장의 하위 유형으로 보는 것이 아닌 부사절의 하위 유형으로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에서 종속절을 부사절로 본다면 이들 종속적 연결 어미를 모두 부사형 어미로 처리해야 한다는 문제점이 따른다. 이처럼 어미의 불균형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따를 수 있으나 어미의 균형에 집중하는 것이 아닌 문법 현상 그 자체에 따라 어미를 설정하는 것이 더 적합할 것이다.[28]

27) 이관규 외(2014),『독서와 문법』, 비상교육, 112쪽.

28) 논의의 결론과 관련하여 고려해야 할 문제로 이어진 문장을 형성하는 연결 어미로 무엇을 설정할 것인가이다. 부사형 어미로 형성되는 부사절과 대등적 연결 어미가 사용되는 대등절, 종속적 연결 어미가 활용되는 종속절을 비교·분석한 논의의 결과를 중심으로 종속적 연결 어미는 부사형 어미로 이동하여 종속절과 부사절을 같은 것으로 볼 수 있도록 한다. 더불어 대등절과 부사절의 차이점이 구체적으로 증명된 바, 대등적 연결 어미는 부사형 어미와 다른 범주로 파악할 것이다. 따라서 어말 어미 체계에서 연결 어미의 하위 유형으로 대등적 연결 어미와 보조적 연결 어미만을 설정하고자 한다. 이는 현재 학교 문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겹문장 체계를 바탕으로 한 어말 어미 허용 체계와 같다.

어말 어미	종결 어미	평서형, 의문형, 감탄형, 명령형, 청유형	
	비종결 어미	연결 어미	대등적 연결 어미
			보조적 연결 어미
		전성 어미	명사형 전성 어미
			관형사형 전성 어미
			부사형 전성 어미 ㄱ *종속적 연결 어미*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Ⅳ. 국어 겹문장 교육 방안

국어 교육에는 많은 교육 관점이 존재한다. 그러한 관점들은 무엇이 완벽한 지식 습득을 가능하게 하는가의 문제보다는 어떤 관점을 포착하고 확장시킬 때, 학습자에게 유용한 교육적 실제를 제시해줄 수 있는지가 중요한 문제가 된다. 학교 문법에서 교육 관점은 지식 체계에 집중하는 내용 면에서의 본질을 잃지 않는 선에서 학습자의 학습 과정 및 결과가 교육적으로 유용한 수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논의가 필요하다.

1. 국어 겹문장 교육 내용 구성 방안

1) 국어 겹문장 교육의 가치와 의의

문법은 언어의 규칙을 체계화한 것이다. 그동안 문법 교육에서는 그러한 언어 규칙을 명제적 지식으로 전달하려는 설명 체계에 집중해 왔고, 그것은 학습자로 하여금 지적 흥미를 불러일으키기에는 부족했다. 지적 흥미 저하라는 정의적 영역의 한계는 인지적 영역에도 영향을 끼쳤고 학습자는 그들이 배운 문법 지식을 실제적인 언어 생활 속에서 인지하고 적용하기 어려웠다. 이는 학습자가 국어 문법에 관해 암묵적인 지식을 가진 모국어 화자라는 점이 깊게 개입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모국어 화자의 삶 전반에 있어 언어는 항상 함께 하지만 그러한 언어를 설명하는 지식 체계로서의 문법이 관여하는 여지가 크지 못한 것이다.[29]

학교 문법이 지식적인 측면에 집중돼 있다는 비판에 말미암아 국어 교육은 국어 지식으로서가 아니라 국어 사용 능력으로서 문법 교육 체계화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론적인 문장 논의가 아니라 언어 기능(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향상에 도움이 되는 실질적인 언어, 즉 사용 능력으로서 활용되는 지식 체계의 문

29) 김은성(2006), 앞의 논문, 126쪽 참조.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법 교육이 강조된 것이다.

일상의 언어활동에 있어 반드시 사용되는 문장, 곧 겹문장에 대해 규칙 체계로 접근하도록 하는 것은 문법에 관한 통찰력을 높일 수 있다. 그러한 통찰력이 이미 국어 화자들에게는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그 필요의 의문이 제기될 수도 있으나 교육의 본질을 고려한다면 충분히 해결 가능하다. 교육은 학습자 모두가 내재된 능력이 있다는 것을 가정하고 그러한 능력을 발전시키기 위해 실행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는 특히 국어 교육 그중 문법 교육과 관련해 더욱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다. 모국어 화자로서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는 문법 체계를 학습자가 탐구할 수 있도록 제시하여 문법 지식을 실질적으로 사용하고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문법의 통찰력을 높이고 나아가 의식적인 언어생활을 가능케 할 것이다. 국어 문법 체계 안에서의 국어 겹문장에 대한 접근, 그리고 그를 설명하려는 교육적 시도는 일상과 교육 문법을 연결하는 지점이 되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김재열(2005)은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41) 언어는 기본적으로 창조적인 속성이 있는 것이다. 언어 학습에서 학습자가 목표어를 외우거나 모방하여 의사소통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알고 있는 어휘와 문법 정보를 담화 상황에 맞게 조합하여 의사소통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때 어휘와 문법 정보를 조합한다는 것은 언어를 창조적으로 사용한다는 것이고, 이와 같은 창조적 사용 능력이 있다함은 곧 문법적 능력을 가지고 있음을 의미한다.[30]

학교 문법에서는 겹문장에 관한 내용이 표현 효과 측면에만 집중되어 있어 오히려 그에 대한 교육이 소홀히 다루어졌다. 이를 보완하기 위한 겹문장 교육 내용이 마련될 필요성이 있는 것이다. 탐구 활동을 구성하고 학습자 주체로 탐구 활동을 수행해 나감으로써 명제적 지식을 탐색하는 일련의 활동은 지식적인 측면의 겹문장 체계뿐만 아니라 일상적인 문장을 생성하고 이해하는 데 관여한다고 볼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이 연구에서 제시하고자 하는 겹문장 교육의 가치

30) 김재열 외(2005), 『한국어교육론2』, 한국문화사, 167-168쪽.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와 의의는 다음과 같다.

(42) 가. 문장은 문법 지식을 바탕으로 사용된다.
나. 문법 지식은 문장 체계뿐만 아니라 사용하는 문장의 구성과 구조 이해의 틀로서 작용한다.

겹문장에 관한 탐구 활동은 겹문장의 구조와 의미에 집중하고 탐색함으로써 학습자가 겹문장의 구조적·의미적 기저에 관해 주체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다. 이는 언어 사용 능력 향상에 기여하며 국어 겹문장 구조에 대한 암묵적인 인식만을 갖고 있는 모국어 학습자들에게 보다 체계적이고 명시적인 국어 문법 교육을 실현시킬 수 있을 것이다.

2) 국어 겹문장 교육 기술의 방향성

Ⅲ장에서 겹문장 체계에 관한 국어학적 분석 결과로서 종속절과 부사절의 속성과 기능에서의 유사성을 찾을 수 있었다. 다만 대등절은 종속절, 부사절과는 확연히 다른 특성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결과에 따라 기존 학교 문법에서 다루어졌던 의미 중심적이고 모호한 체계를 통일하여 하나의 '기본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6> 국어 겹문장 체계 기본안

겹문장	안은 문장	명사절을 안은 문장
		관형절을 안은 문장
		부사절을 안은 문장 ⊃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
		서술절을 안은 문장
		인용절을 안은 문장
	이어진 문장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

기존 겹문장 교육은 문장 체계에 관해 복수의 관점을 취하고 있어 검인정교과서가 선택하는 교육 내용 구성 방식과 교사가 견지하는 입장에 따라 그 내용이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선정됨은 물론 이로 인해 학습자들 간 서로 다른 지식이 형성될 수 있다는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 연구에서는 정합성을 갖춘 하나의 통일된 체계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으며 국어학적 논의를 거쳐 하나의 기본 체계를 제안하였다. 겹문장 체계를 통일함으로써 기존 학교 문법의 모호한 관점으로 인한 교육적 혼란 및 학습자 간 문법 지식이 상이해지는 문제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기존 겹문장 교육은 이어진 문장을 선행절의 위치 혹은 의미를 기준으로 구분하고 활용하도록 하였다. 이는 문법이라는 그 내용적인 면에서 문법적 속성을 배제한 모순적인 양상이다. 대등절과 종속절의 구조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이어진 문장의 범주로 묶으면서 발생한 교육적 오류로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이 연구에서 제시하는 '기본안'을 바탕으로 기존 겹문장 교육 방식에서 벗어나 문장의 구조적 특성에 초점을 맞추는 탐구 활동을 제안할 것이다. 학습자가 겹문장을 다양한 문법 요소의 구조적 유기체로 바라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언어는 기본적으로 여러 요소들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아 생성되는 것으로 겹문장 또한 학교 문법의 모호한 기준에서 벗어나 구체적인 관점에서 그 영향 관계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학교 문법에서 겹문장은 의미적인 관점에 집중하여 이어진 문장과 안은 문장을 분리하는 구조적 특징, 즉 변별 기준들이 배제된 채 교육되어 왔다. 겹문장은 문장과 문장이 결합하여 다양한 관계를 형성하고 그 속에서 특징적인 규율을 갖는다. 그러므로 그 관계 양상에 대한 기본 지식을 학습한 후, 이를 바탕으로 심화 지식을 탐구하고 이해하도록 하여 겹문장의 총체적인 틀을 구체화하는 교육이 필요한 시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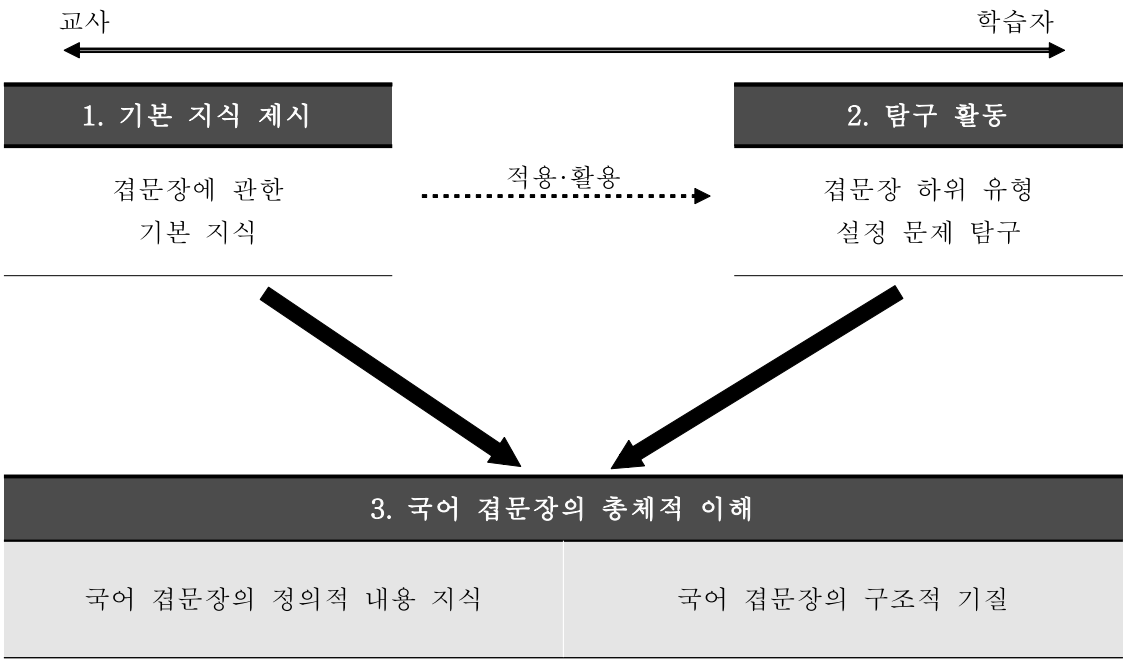
그러나 기존 학교 문법의 관점을 당장 수정하는 것은 국어학적으로 더욱 신중한 검증이 필요하기 때문에 겹문장 체계의 다양한 모습을 확인시켜 주는 수업 형태를 보일 수밖에 없다. 다만 이는 겹문장을 구조적으로 파악하고 관계적 구조체로서 겹문장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나아가 전반적인 국어 형성 과정을 인지하는 교육 내용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따라서 복잡한 실재인 대등절, 종속절, 부사절의 설정 문제를 접근해 보도록 하는 교육 내용은 국어의 본질을 이해하는 데 그 의미를 가진다.

국어 겹문장 교육 내용은 학습자가 문장 체계에 따라 의미적·구조적 기능이 달라질 수 있음을 인식하는 것을 시작으로 변별 기준을 적용하여 그 형태가 어떻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게 다른지 탐구하도록 하는 인식과 탐구의 단계로 구성할 것이다. 이를 통해 학습자로 하여금 다양한 요인을 고려하도록 하여 결론적으로는 국어 겹문장에 대한 온전한 이해를 기반으로 국어의 언어 구조를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구성하고자 한다. 이는 하나의 겹문장 체계, 곧 단일한 지식만을 학습하는 것보다 해당 내용을 훨씬 폭넓고 깊이 있게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줌으로써 풍부한 학습적 경험을 제공할 것이다.

여기서 학습자가 혼란을 갖지 않도록 교사는 과정의 결과를 '기본안'으로 유도하되, 설정 문제 탐구는 '접근' 차원에만 머물도록 하여 학습자 수준을 벗어나는 심오한 과정으로까지 나아가지 않도록 한다. 지금까지 논의한 겹문장 교육 내용을 시각화하여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그림 1] 국어 겹문장 교육 내용 구성 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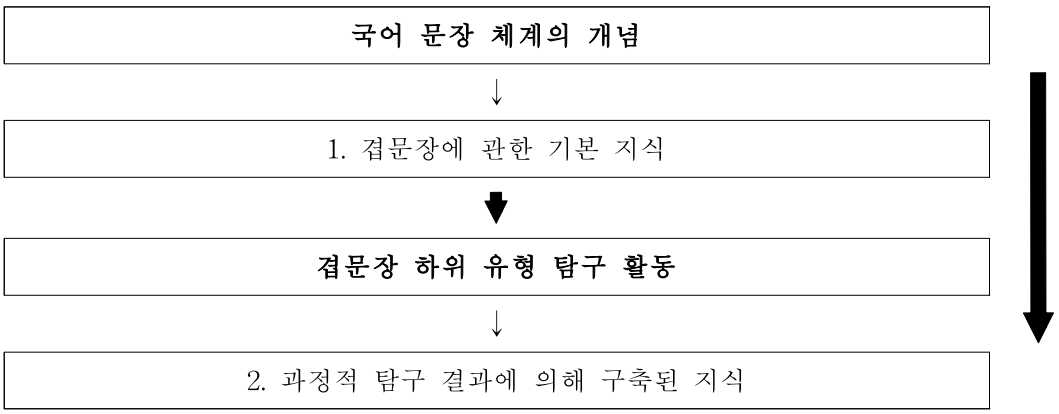
'기본 지식 제시'에서 다루어지는 지식은 '정의적 내용 지식'으로, 규정된 겹문장 체계의 개념적 학습을 의미한다. 여기서는 지식 전달의 주체로서 교사의 역할이 강조된다. 반면 학습자 주체의 '탐구 활동'은 '구조적 기질'을 탐구하여 결론을 도출해내는 절차로 볼 수 있다. 겹문장을 학습자 스스로 탐구해봄으로써 겹문장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에서 일어나는 일련의 현상을 발견하고 그에 따른 결론을 도출하도록 하여 겹문장의 총체적 이해를 돕는 것이다. 여기서 교사 주체의 기본 지식 제시는 '탐구 활동'에서 적용되고 활용되는 도구이자 길잡이로서 사용되어야 한다.

이러한 방향성을 이루기 위한 지식의 위계로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다. 겹문장에 관하여 관계적 지식을 두 단계로 나눈 것은 학교 문법에서 겹문장에 대한 모호한 입장으로 인해 겹문장 교육의 올바른 학습적 절차가 고려되지 못했다는 문제의식에 근거한다.

먼저 1차적 지식으로 겹문장에 대한 사고 활동이 이루어지기 위해 필요한 겹문장에 대한 기본 개념 지식이다. 이는 학습자 주체 탐구 활동의 기반이 된다. 그 다음 2차적 지식은 겹문장을 인식하고 탐구하는 활동의 결과로 얻게 되는 '탐구 활동 과정을 통해 구축된 지식'이다. 위의 방향성을 토대로 구축된 겹문장에 대한 단계적 지식 양상을 다음과 같이 도식화하여 보일 수 있다.



[그림 2] 국어 겹문장 교육의 단계적 지식

다음의 교육 내용의 실제에서는 이러한 두 단계적 지식을 염두에 두고 내용을 구체화할 것이다. 국어 겹문장 교육 내용이 이러한 방향성으로 구성되었을 때 학습자는 국어 겹문장의 정의적 내용 지식을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국어 겹문장 기질을 스스로 탐구해 보는 경험과 함께 탐구 활동을 수행함으로써 문장의 다양한 요인들을 고려할 수 있게 되어 언어의 규칙을 이해하고 탐색해 볼 수 있으며, 이로 하여금 학습자는 국어 겹문장에 관한 총체적인 문법 학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습을 이룩할 수 있을 것이다.

지식 단계에서 1차적 지식은 국어 겹문장 요소들의 관계적 지식 구축을 위한 것으로 문장의 개념을 밝히는 것을 시작으로 홑문장과 겹문장을 제시하도록 할 것이다. 여기서 겹문장의 하위 유형은 명확히 제시하지 않고 학습자 스스로 2차적 지식 탐구를 통해 습득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1차적 지식으로 이와 같은 지식을 선정한 것은 겹문장에 대한 개념 인식을 기반으로 학습자가 탐구 활동을 통한 지식 구축에 있어 별다른 어려움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1차적 지식에 관한 내용 요소로는 구체적으로 '문장'과 '홑문장', '겹문장'의 정의를 시작으로 하여 겹문장 하위 유형에 관해 안은 문장과 이어진 문장만을 학습하도록 하고, 예문을 제시하여 학습자 스스로 제시된 예문들이 어느 문장 유형에 속하는지 구분해볼 수 있도록 구성하고자 한다. 이는 탐구 활동을 위한 기본 개념으로 겹문장에 대한 개념 인식을 돕고 겹문장 내의 여러 유형들을 구분하는 기저가 무엇인지 인식할 수 있는 내용이 될 것이다.

이러한 1차적 기본 지식을 바탕으로 탐구 활동을 통한 논리적 인식의 결과로 구축되는 2차적 지식은 문장에 대한 관계적 지식의 내용을 인식할 수 있도록 구성할 것이다. 이 지식은 국어 겹문장을 통해 문장과 관련된 내외적 요소들을 바탕에 두고 문장 구조를 탐구하여 습득할 수 있다. 그 하위 내용 요소로는 '겹문장 유형에 따른 구조적·의미적 차이 유추하기', '겹문장 하위 유형 구조 탐구하기', '대등절과 부사절 탐구', '대등절과 종속절 탐구', '부사절과 종속절 탐구'로 구성할 수 있으며 이는 모두 학습자 주체로 수행될 것이다. 이를 종합하여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표 7> 국어 겹문장에 대한 단계적 지식 내용 요소

지식 차원		내용 요소
1차 지식	겹문장에 관한 기본 지식	문장·홑문장·겹문장 개념
		문장 유형 구분하기
2차 지식	과정적 탐구 결과에 의해 구축된 지식	겹문장 유형에 따른 구조적·의미적 차이 유추하기
		겹문장 하위 유형의 구조 탐구하기
		대등절·부사절 탐구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대등절·종속절 탐구
		부사절·종속절 탐구

단계별 지식에 대한 교육의 결과로 학습자는 겹문장에 대한 총체적인 이해에 이르게 되는데, 여기서 2차 지식은 1차 지식보다는 더욱 고차원적인 이해가 요구된다. 1차 지식의 이해는 2차 지식을 위한 이해, 즉 2차 지식 습득을 위한 활동의 기반으로 단순한 수준의 개념적 이해를 의미한다. 2차 지식은 1차 지식과 달리 탐구와 논리적 인식 활동의 결과로 얻어지는 이해이다.

겹문장을 교육할 때에는 학습자의 원활한 이해를 위한 단순화된 문장을 선행적으로 다룰 필요가 있다. 단순화된 문장은 학습자가 개념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문장 구조가 명료하게 드러나는 것으로 선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1차적 지식습득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겹문장 교육에서 사용되는 단순화된 문장은 겹문장 체계의 구조와 특성에 대한 내용 지식을 온전히 학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며 부사절과 종속절의 통사적 특성을 탐구하고 명료화하여 부사절과 종속절의 문제를 원만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2. 국어 겹문장 교육 내용 구성의 실제

겹문장 교육은 언어 사용 기능 향상을 위해 학습자들이 가져야 할 언어 구조적 지식을 탐구할 수 있도록 제시해야 한다. 그러므로 교사는 겹문장에 관한 학습자의 기본 개념 형성을 위해 겹문장과 관련된 기본 개념들을 제시하고 설명하여야 한다.

가장 먼저 앞서 논의한 1차적 지식, 곧 겹문장에 관한 기본 지식의 이해를 돕기 위해 교사 주도의 겹문장 체계의 기본적인 개념 제시가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한 활동의 하나로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43) 학습활동 1

※ 아래 설명을 읽고 다음 질문에 답해 보자.

<table>
<tr><td rowspan="3">문장</td><td colspan="2">홑문장</td></tr>
<tr><td rowspan="2">겹문장</td><td>안은 문장</td></tr>
<tr><td>이어진 문장</td></tr>
</table>

- **문장**: 완결된 내용을 나타내는 독립적 형성을 갖춘 최소의 단위로 주어와 서술어를 갖추고 있는 것이 원칙이다. 문장은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 횟수에 따라 홑문장과 겹문장으로 나눌 수 있다.

- **홑문장**: 주어와 서술어가 한 번 나타나는 문장

(예) 꽃이 예쁘다.
주어 + 서술어

우리 집 정원에 드디어 장미꽃이 피었어.
주어 + 서술어

- **겹문장**: 주어와 서술어가 두 번 이상 나타나는 문장으로 하나 이상의 절을 가짐.

안은 문장	- 전체 문장이 홑문장을 안고 있는 겹문장 - 안은 문장 속에 안겨 있는 홑문장을 '안긴문장'이라고 함. (예) 그는 [주어] 아직도 우리가 [주어 + 서술어] 들어왔다는 걸 [서술어] 모르고 있어
이어진 문장	- 홑문장과 홑문장이 이어진 겹문장 (예) 이것은 [주어 + 서술어] 장미꽃이고, [주어 + 서술어] 저것은 국화꽃이야.

《활동 1》 아래 제시된 예문이 홑문장인지 겹문장인지 구분해 보자.

ㄱ. 영희는 집에 간다.
ㄴ. 동생은 음악을 듣고 나는 숙제를 한다.
ㄷ. 우리는 그것이 마지막 기회임을 깨달았다.
ㄹ. 우리는 모두 지구가 둥글다는 것을 알고 있다.
ㅁ. 철수는 키가 크다.
ㅂ. 병우는 병우가 직접 서원이를 만난 기억이 없다.
ㅅ. 나는 그가 착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ㅇ. 붉은 해가 불이 활활 타듯이 솟아올랐다.
ㅈ. 그는 "저는 알지 못합니다."라고 말했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ㅊ. 언니는 과자를 먹어도 된다고 말했다.

- 홑문장:

- 겹문장:

《활동 2》 '활동 1'에서 홑문장과 겹문장을 구분한 근거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자.

교사는 (43)를 통해 학습자가 탐구 활동을 수행하기 전 국어 겹문장에 관한 기본 개념을 인식·학습할 수 있도록 한다. 겹문장 유형을 설명함에 있어 다양한 예문을 제시하여 학습자가 문장의 구조에 관해 인식하고 그러한 인식을 기반으로 스스로 구분해 보도록 하는 활동을 제시하여 개념에 대해 구체적으로 인지할 수 있도록 한다.

1차적 지식 이해가 끝난 후 다음 2차적 지식으로 과정적 탐구 결과에 의해 구축된 지식 형성이 이루어져야 한다. 2차적 지식 습득을 위한 본격적인 '탐구 활동'이 이루어지기 전에 학습자 스스로 겹문장에 관해 탐색하고 인식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교육 내용의 실제로서 다음과 같은 활동을 구성할 수 있다.

(44) 학습활동 2

※ 다음 설명을 읽고 다음 질문에 답해 보자.

《활동 1》 예문 중 밑줄 친 부분이 전체 문장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알아보자.

ㄱ. 나는 그가 오기를 기다린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ㄴ. 이것은 내가 읽던 책이다.
ㄷ. 창조가 아무 말도 없이 내 뒤로 다가왔다.
ㄹ. 다은이는 눈이 매우 예쁘다.
ㅁ. 서준이가 “난 저렇게 많은 별은 처음 봐.”라고 말했다.

《활동 2》 위 예문들이 아래 문장 유형 중 어디에 속하는지 알아보자.

안은 문장	명사절을 안은 문장	
	관형절을 안은 문장	
	부사절을 안은 문장	
	서술절을 안은 문장	
	인용절을 안은 문장	

(44)를 통해 학습자는 겹문장의 구조에 집중하여 겹문장의 하위 유형 중 안은 문장에 관한 구조적 관계 양상을 인식할 수 있다. (44《활동 1》)에서의 인식을 기반으로 (44《활동 2》)에서는 학습자가 스스로 겹문장 유형을 구분해 보도록 하여 국어 겹문장을 구조적 유기체로 파악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

(45) 학습활동 3

※ 다음 예문을 읽고 아래 질문에 답해 보자.

ㄱ. 바람이 불고 비가 왔다.
ㄴ. 순이가 버리거나 철수가 버린다.

《활동 1》 위 예문이 안은 문장인지, 이어진 문장인지 구분해 보자.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활동 2》 위 예문을 구성하는 홑문장이 각각 무엇인지 찾아보자.

《활동 3》 활동 1에서 찾아 낸 홑문장을 바탕으로 아래 질문에 O, X로 답해 보자.

1. 이어지는 홑문장들의 의미 관계가 대등하다. ( )
2. 앞 절과 뒤 절을 도치하여도 문장이 성립한다. ( )

학습자는 (45《활동 1》)를 통해 겹문장 중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을 이루는 기저가 무엇인지 인지할 수 있다. (45《활동 1》)에서의 인지를 바탕으로 (45《활동 2》)에서는 그 관계 양상에 관해 구체적으로 탐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45《활동 3》)을 통해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의 특징을 명시적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하였다.

(46) 학습활동 4

※ 다음 예문을 보고 아래 질문에 대해 답해 보자.

ㄱ. 비가 오고 바람은 안 분다.
ㄴ. 비가 소리도 없이 내린다.

《활동 1》 두 예문을 읽었을 때 어떤 느낌이 드는지 생각해 보자.

《활동 2》 두 예문의 의미와 구조가 비슷한지 생각해 보자.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활동 3》 두 예문의 차이점이 있다면 무엇인지,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 말해 보자.

(46)는 2차적 지식을 위한 본격적인 탐구 활동의 예문으로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과 부사절을 안은 문장을 제시한다. 이는 종속절을 부사절의 하위 범주로 포함할 수 있다는 결론 구성을 돕는 역할을 한다. (46《활동 1》)과 (46《활동 2》)를 통해 대등절과 부사절의 의미 및 구조의 차이성을 인지할 수 있으며 (46《활동 3》)에서는 위 두 문장의 차이점에 초점을 맞추어 ㄱ과 ㄴ을 비교해 가며 어떠한 요인에서 차이점이 발견되는지 추론해 보는 경험을 가질 수 있다. 이를 통해 학습자는 대등절과 종속절을 같은 범주로 보기엔 어렵다는 점을 인식할 수 있다.

(47) 학습활동 5

※ 다음 예문을 보고 아래 질문에 대해 답해 보자.

ㄱ. 철수가 집에 가고 영희가 학교에 간다.
ㄴ. 철수가 청소를 하거나 영희가 청소를 한다.
ㄷ. 소리도 없이 문을 열었다.
ㄹ. 봄날의 벚꽃이 지듯 우리의 청춘도 진다.

《활동 1》 위 예문을 '안은 문장'과 '이어진 문장'으로 구분해 보자.

《활동 2》 활동 1에서 문장 유형을 구분한 근거가 무엇인지 설명해 보자.

《활동 3》 위 예문을 아래와 같이 바꾸었을 때 차이점을 설명해 보자.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ㄱ. (1) 영희가 학교에 가고 철수가 집에 간다.
(2) 영희가 철수가 집에 가고 학교에 간다.
(3) 철수가 집에 가고 영희가 학교에 가고 한다.
ㄴ. (1) 영희가 청소를 하거나 철수가 청소를 한다.
(2) 영희가 철수가 청소를 하거나 청소를 한다.
(3) 철수가 청소를 하거나 영희가 청소를 하거나 한다.
ㄷ. (1) 문을 열리 소리도 없다.
(2) 문을 소리도 없이 열었다.
(3) 소리도 없이 문을 열리 한다.
ㄹ. (1) 우리의 청춘도 지듯 봄날의 벚꽃이 진다.
(2) 우리의 청춘도 봄날의 벚꽃이 지듯 진다.
(3) 봄날의 벚꽃이 지듯 우리의 청춘도 지듯 한다.

학습자는 (47《활동 1》)을 통해 1차적 지식 내용과 관련하여 대등절과 부사절을 구분해 보고, (47《활동 2》)에서 그 구분 근거를 밝혀 대등절과 부사절의 유형이 다름을 인식할 수 있다. (47《활동 3》)에서는 각 예문의 선·후행절을 이동시켰을 때와 연결 어미를 반복하였을 때 나타나는 의미, 구조적 변화를 명시적으로 나타내어 대등절과 부사절 간의 차이점을 구체화시킬 수 있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학습자는 대등절과 부사절의 관계 유형을 이해하고 대등절과 부사절이 어떤 기준에 따라 다르게 표상되고 있음을 인식하게 된다.

이때 교사는 대등절과 부사절의 변별 기준으로 '1. 대칭성 및 교호성, 2. 선행절의 위치 이동, 3. 연결 어미 반복'을 제시하여 대등절과 부사절의 표상적 차이가 어떤 조건에 의해 발현되고 있는지 명확하게 알려준다.

(48) 학습활동 6

※ 다음 예문을 읽고 아래 질문에 답해 보자.

ㄱ. 비가 오고 바람은 안 분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ㄴ. 비가 와서 땅이 젖었다.

《활동 1》 두 예문을 읽었을 때 어떤 느낌이 드는지 생각해 보자.

《활동 2》 두 예문 모두 이어진 문장으로 볼 수 있을지 생각해 보자.

《활동 3》 두 예문 모두 안은 문장으로 볼 수 있을지 생각해 보자.

《활동 4》 앞서 학습한 변별 기준을 적용하여 ㄴ이 어떤 문장인지 생각해 보자.

위 활동은 대등절과 종속절의 차이점에 대해 초점을 맞춘 것으로 대등절과 종속절이 한 범주로 묶일 수 있는 중첩 요소를 갖고 있는지 탐구하는 것이다. (48 ㄱ)은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 (48 ㄴ)은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의 예로 학습자는 (48《활동 1》)을 통해 그 의미적 차이에 대한 인식을 상기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의미적 차이를 기반으로 (48《활동 2》)와 (48《활동 3》)을 거치며 학습자는 대등절과 종속절의 언어 형식에서 비롯되는 의미와 구조에 초점을 두어 두 문장의 차이점을 도출해내는 경험을 가질 수 있다. 즉, 학습자는 이 활동을 통해 대등절과 종속절이 동일한 범주로 묶이기 어렵다는 결론을 탐구해 낼 수 있는 것이다. 여기서 교사는 대등절과 종속절을 구분하는 요소로서 앞서 제시한 변별 기준을 언급하도록 하여 다음의 (48《활동 4》)를 설명할 때 적용해 볼 수 있도록 한다. (48 《활동 4》)는 앞서 탐구한 내용을 기반으로 대등절과 종속절이 같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은 범주로 처리될 수 있는가를 판단하는 것으로 학습자는 (48 《활동 4》)의 결론을 통해 다음의 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49) 학습활동 7

※ 다음 예문을 읽고 아래 질문에 답해 보자.

ㄱ. 도서관에 갔는데 사람이 많았다.
ㄴ. 비가 와서 땅이 젖었다.
ㄷ. 불평 한마디 없이 지훈이는 집안일을 하였다.
ㄹ. 아무도 모르게 기부를 하였다.

《활동 1》 이어진 문장과 안은 문장을 구분해 보자.

《활동 2》 아래의 기준을 예문에 적용하여 위 예문을 어디에 포함할 수 있는지 탐구해 보자.

1. 앞 절과 뒤 절의 위치를 바꾸었을 때 문장 의미가 변하는가?
2. 앞 절을 뒤 절의 중간 성분으로 위치시켰을 때 문장 의미가 변하는가?
3. 위 두 과정을 적용했을 때 문장이 비문이 되는가?
4. 연결 어미가 뒤 절에 반복적으로 나왔을 때 비문이 되는가?

《활동 3》 위 예문에서의 앞 절과 뒷 절의 의미 관계가 어떠한지 생각해 보자.

(49)은 겹문장 교육의 마무리 과정으로 종속절과 부사절의 설정 문제에 대해 탐구해 보는 것이다. 학습자는 종속절과 부사절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었을 때,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두 절이 분명하지 않은 경계에 위치하고 있음을 판단할 수 있다. 그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종속절과 부사절에서 중첩되는 속성이 무엇인지 여러 요소를 고려한 탐색을 수행할 수 있게 된다. 학습자는 (49《활동 1》)을 통해 종속절과 부사절의 구분이 애매하다는 것을 인지하고 (49《활동 2》)를 거쳐 종속절과 부사절의 속성이 중첩됨을 도식화하여 확인할 수 있다. 또한 (49《활동 3》)에서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과 부사절을 안은 문장의 선행절과 후행절의 의미 관계가 비슷한 양상을 띠고 있음을 발견하도록 하고 이를 통해 종속절을 부사절의 하위 범주로 포함할 수 있다는 결론으로 유도할 수 있도록 한다.

교사는 모든 활동 과정에서 학습자 간 상호작용을 장려하며 학습자가 자신이 이해한 바를 다른 학습자에게 교수해주거나 서로 의견을 주고받는 토의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한다. 대등절, 종속절, 부사절의 구조, 의미 양상을 파악하는 과정에서 변별 기준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교사는 잘못된 개념을 갖고 있는 학습자가 없는지 파악해야 한다.

(50) 학습활동 8

※다음 예문을 읽고 아래 질문에 답해 보자.

ㄱ. 그 아이가 재주가 많다.
ㄴ. 농부가 비가 오기를 기다린다.
ㄷ. 그가 다음 주에 가겠다고 했습니다.
ㄹ. 그녀는 평소에도 속삭이듯 말한다.
ㅁ.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ㄹ. 배가 고파서 그는 물을 들이켰다.
ㅂ. 예쁘게 장미꽃이 피었네.
ㅅ. 봄이 오면 많은 사람들은 소풍을 나간다.
ㅇ. 들꽃이 아름답게 피었네.
ㅈ. 철수는 집에 가고 영희는 학교에 갔다.
ㅊ. 정윤이가 사무실에 가거나 자연이가 사무실에 간다.

《활동 1》 위 예문들이 아래 겹문장 유형 중 어디에 속할지 생각해 보자.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겹문장	안은 문장	
	이어진 문장	

(50)는 탐구 활동의 마지막 단계로서 학습자는 자신의 탐구 내용, 즉 탐구 활동 과정에서 습득된 2차적 지식을 바탕으로 위의 활동을 수행하도록 한다. (50)을 바탕으로 (50)에서 주어진 예문들이 안은 문장인지, 이어진 문장으로 구분할 것인지 학습자가 자신이 탐구한 지식을 바탕으로 구분하도록 할 것이다.

예문들 중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과 부사절을 안은 문장을 제시하여 학습자 스스로 문장 유형을 구분할 수 있도록 한다. 위의 과정을 통해 학습자는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이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과는 확연히 다른 구조적·의미적 기질을 갖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과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을 같은 범주로 포함할 수 없음을 인식할 수 있다. 또한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과 부사절을 안은 문장의 유사점을 인지하고 있으므로 이 연구에서 제안하는 기본안을 그 결과로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활동의 마무리로서 교사는 기본안 제시하여 겹문장 교육을 마치도록 한다.

탐구 중심의 내용 구성은 학습자가 주어진 문장을 분석하면서 각 문장의 차이점과 공통점이 무엇인지 추론해 나가는 것으로 국어 겹문장에 관해 다양한 접근이 가능하다. 이때 설정 문제와 관련하여 학습자는 개념적 혼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교사는 계속해서 변별 기준을 상기시켜주고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구분이 용이하도록 문장을 제시할 때 선행절을 시각적으로 달리 표현하거나 교사와 학습자, 학습자와 학습자 간의 활발한 상호작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별 활동을 권장한다.

교육 내용은 학습자가 주어진 문장을 분석하면서 각 문장의 차이점과 공통점이 무엇인지 추론해 나가는 것으로 겹문장에 대한 기본 개념을 적용해 보는 것에서부터 학습자 스스로 탐구한 지식을 기반으로 해결해나갈 수 있도록 구성하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였다. 이로써 학습자는 겹문장 개념과 관련한 명확한 지식 체계를 확립할 수 있으며 겹문장을 탐구해 보는 활동을 통해 문장을 이루는 규율을 인식하고 이해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Ⅴ. 결론

학교 문법은 기술 문법의 성과를 바탕으로 하되 교육적 관점을 고려하여 그 내용과 기술 방향이 선정되어야 한다. 즉, 기술 문법의 연구 결과 그 자체가 교육적 대상이 될 수 없으며 교육 내용이 되기 위해 교수·학습 방법, 교수요목, 교육과정 등과 같은 교육적 차원에서의 고려가 반영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학교 문법에서 겹문장 교육은 기술 문법의 쟁론을 그대로 반영하여 효과적이고 정확한 교육을 어렵게 함은 물론 이로 인해 학습자와 교사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국어 겹문장은 문장과 문장이 결합하여 다양한 관계를 형성하는 것으로 국어 문법 특성과 원리를 지닌 국어 활용의 주된 현상이다. 겹문장 구성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유형의 구조적·의미적 특성은 학습자가 스스로 탐구할 수 있는 매우 유용한 학습 주제가 될 수 있다. 그러나 학교 문법의 겹문장은 바로 이 교육적 유용성이 고려되지 못한 채 혼란적인 양상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기존 겹문장 체계의 모호한 입장에서 벗어나 정합성을 갖춘 하나의 기본안을 제안하고 학습자 스스로 탐구적 측면에서 적용하도록 하는 교육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우선 Ⅱ장에서는 기존에 모호한 관점에서 행해져 왔던 겹문장 교육을 비판적으로 고찰하였다. 이는 겹문장과 관련하여 교육과정에서 어떤 변화 양상이 발견되는지 분석하는 것으로 시작하여 현행 교과서의 겹문장 교육 내용을 점검해 보았다. 이를 통해 학교 문법은 겹문장에 관해 통일적인 체계를 제시하고 있지 않아 교육적 혼란을 야기할 뿐만 아니라 그 교육 내용조차 겹문장의 교육적 유용성이 고려되지 않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Ⅲ장에서는 교육 내용 구안에 있어 필수적인 통일 기본안을 위해 대상이 되는 겹문장의 국어학적 특성과 그 복합적 성격과 관련되는 개념을 분석해 보았다. 먼저 겹문장의 주요 개념인 ‘접속’과 ‘내포’에 관해 살펴보았으며, ‘접속’과 ‘내포’의 개념과 구조의 중첩으로 인해 ‘접속’ 층위의 종속절을 ‘내포’ 층위의 부사절로 포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함할 수 있는 이론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또한 겹문장에서의 대등절, 종속절, 부사절의 설정 문제를 국어학적 관점으로 통찰해 보았으며 대등절의 독립적 지위를 인정하고 종속절을 부사절의 하위 범주로 포함할 수 있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Ⅲ장의 논의를 통해 국어 겹문장 체계의 하나의 기본안을 제안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였다.

위 논의를 바탕으로 Ⅳ장에서는 국어 겹문장 체계의 기본안을 제시하고 겹문장 교육의 실제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방향성 기술을 시작으로 교육 내용을 겹문장 탐구 과정에 주목하여 예시 활동을 제시하였으며 그 활동 단계를 단계적 지식 습득의 과정으로 설정하여 그 실제를 보였다. 겹문장 교육은 그동안 모호한 관점으로 인해 그 교육적 가치가 인정되지 못한 겹문장의 구조를 탐구하는 것을 그 주제로 선정하였으며, Ⅲ장에서 논의한 변별 기준을 학교 문법에서 명시적으로 제시할 수 있도록 하여 부사절의 설정 문제와 관련한 학습자의 혼란을 줄이고자 하였다.

이 연구는 국어학계의 기존 이론을 중심으로 타당한 체계를 추론하였으며 실제 교육 현장에 적용하지 못했기 때문에 실제와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한계점을 가진다. 또한 국어 겹문장 교육을 인식 수준이 높은 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구성하였기 때문에 초등, 중등학교의 겹문장 교육과의 연계성을 이루지 못했다는 점에서도 한계점을 갖는다.

그러나 학교 문법의 겹문장 교육을 비판적으로 고찰하고 교육적 관점에서 국어 겹문장에 관해 논의함으로써 더 발전적인 겹문장 교육을 현실화시키고자 하였다. 또한 겹문장을 통해 언어에 관한 탐구에 이르는 문법교육의 궁극적인 목적을 지향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교육 내용의 구안을 시도했다는 점에서 이 연구의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의 논의를 통해 기존 문법 교육의 내용과 체계가 점검되고 새로운 방향이 모색되기를 기대한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참고 문헌>

1. 기본 자료

교육인적자원부(2002),『고등학교 문법』, 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

교육인적자원부(2002),『고등학교 문법 교사용 지도서』, 서울대학교 국어교육 연구소.

교육부(1997),『교육부 고시 제 1997-15호 [별책5] 국어과 교육과정』, 교육부.

교육인적자원부(2007),『교육인적자원부 고시 제 2007-79호 [별책5] 국어과 교육과정』, 교육인적자원부.

교육과학기술부(2009),『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 2009-41호 [별책5] 국어과 교육과정』, 교육과학기술부.

교육과학기술부(2011),『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 2011-361호 [별책5] 국어과 교육과정』, 교육과학기술부.

교육과학기술부(2012),『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 2012-14호 [별책5] 국어과 교육과정』, 교육과학기술부.

박영목 외(2014), 고등학교『독서와 문법』, 천재교육.

윤여탁 외(2014), 고등학교『독서와 문법』, 미래엔.

이관규 외(2014), 고등학교『독서와 문법』, 비상교육.

이도영 외(2014), 고등학교『독서와 문법』, 창비.

이삼형 외(2014), 고등학교『독서와 문법』, 지학사.

한철우 외(2014), 고등학교『독서와 문법』, 교학사.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2. 단행본

권재일(1985),『국어의 복합문 구성 연구』, 집문당.

_____(1992),『한국어통사론』, 민음사.

_____(2012),『한국어문법론』, 태학사.

김정대 외(2011),『한국어 통사론의 전망』, 경진.

김재열(2005),『한국어교육론 2』, 한국문화사.

남기심(2002),『현대 국어 통사론』, 태학사.

남기심·고영근(1985),『표준국어문법론』, 탑출판사.

서정수(1994),『국어 문법』, 서울:뿌리깊은나무.

왕문용·민현식(1993),『국어 문법론의 이해』, 서울:개문사.

이익섭(2003),『국어 부사절의 성립』, 태학사.

최현배(1971),『우리말본』, 정음문화사.

허 웅(1984),『국어학-우리말의 오늘 어제』, 샘문화사.

3. 학술지 및 학위 논문

김경찬(2001),「국어 부사절 내포문 구성 연구」,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김병욱(2008),「부사형 어미 설정에 관한 연구」, 인천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김은성(2006),「국어 문법 교육의 태도 교육 내용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남가영(2008),「문법 탐구 경험의 교육 내용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남기심(1985),「접속 어미와 부사형 어미」,『말』10, 연세대학교 한국어학당.

민현식(2002),「'부사성'의 문법적 의미」,『한국어 의미학』10, 한국어의미학회.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방수정(2017), 「학교 문법의 문장 성분에 관한 연구: 역대 교육과정과 문법 교과서를 대상으로」, 서강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서승완(2015), 「부사형 어미 교육방안 연구」,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송현정(1998), 「성분 호응에 관한 국어교육적 소고: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를 중심으로」, 『국어교육연구』 5, 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

_____(2002), 「국어지식 영역의 교과서 제시방식에 관한 분석」, 『국어교육』 제109호, 한국어교육학회.

왕문용(1994), 「국어연구의 방향과 관련된 몇 문제」, 『선청어문』 22, 서울대학교 국어교육과.

_____(1997), 「대등접속문은 국어에 과연 있는가」, 『어문학보』 20, 강원대학교 국어교육과.

유 정(2016), 「학교 문법의 겹문장 체계 연구」, 아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유현경(1986), 「국어 접속문의 통사적 특질에 대하여」, 『한글』 191, 한글학회.

_____(2002), 「부사형 어미와 접속 어미」, 『한국어학』 16, 한국어학회.

_____(2011), 「접속과 내포」, 국어학 통권 제60호, 국어학회.

이관규(1999), 「대등문·종속문·부사절 구문의 변별 특성」, 『선청어문』 27, 서울대학교 국어교육과.

이래호(2012), 「2009 개정 교육과정 “독서와 문법” 교과서의 문장 단원 고찰」, 『한민족언어문학』 제60호, 한민족어문학회.

이은경(2010), 「역대 학교 문법의 연결 어미와 부사형 어미: 이어진문장, 부사절과의 관련을 중심으로」, 『한국어학』 46, 한국어학회.

이정훈(2016), 「학교 문법의 ‘겹문장’ 관련 내용 고찰」, 『언어와 정보사회』 제28호, 서강대학교 언어정보연구소.

조나래(2014), 「대등문의 통사적 특성과 교수 학습 방안」,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최재희(1997),「국어 종속 접속의 통사적 지위」,『한글』238, 한글학회.
허경철(1992),「Ⅰ, 제6차 교육과정 각론 개정의 주요 방향」, 교육개발 제14권 제3호, 한국교육개발원.

4. 기타

김주아(2010),「일반계 고등학교 보통교과 선택 과목 개설현황」, 교육과학기술부·한국교육개발원 통계연보.
NCIC 국가교육과정정보센터 홈페이지(http://ncic.re.kr)
한국검인정교과서협회 홈페이지(http://www.ktbook.com)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Abstract>

A Study on education methods of Korean complex sentences

- Focused on the issue of the grammatical category in adverbial clauses -

Kim, Jeong-Ah

A major in Korean language and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Jeju National University

Supervised by Professor Song, Hyun-Jung

School grammar is chosen and applied to teaching after consideration from the educational perspectives based on research outcome about descriptive grammar. However, educational contents are selected from the perspectives of individual teachers or authorized text books and knowledge system can be differently built between students because the current education for Korean complex sentences reflects disputes over descriptive grammar.

A complex sentence in Korean language is a common phenomenon that reflects principles and features of Korean language. As the sentence includes various types of features, it can be a useful subject of inquiry. But education for complex sentences at schools simply focuses on understanding linguistic expression, so educational values of the complex sentences are not properly realized. Based on the point in question, this study suggests a plan to cause less confusion in the education for complex sentences and focuses on structurizing educational contents for effective education.

For the purposes, chapter Ⅱ looks into educational situations for complex sentences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by analyzing changing trends in structure of complex sentences according to Korean language curriculum at school. This is to point out problems of the education for complex sentences and to stress the need of structurizing educational contents to figure out the problems.

Chapter Ⅲ looks into concepts related to linguistic features and complex properties to suggest a system that causes less confusion in the education for complex sentences. “Conjunction” and “Embedding”, main notions of complex sentences are reviewed. This chapter provides theoretical rationale to include subordinate clauses in adverbial clauses for overlapped notions and structures of “Conjunction” and “Embedding.” Categorization of coordinate, subordinate and adverbial clauses are examined from the perspectives of Korean linguistics. From the categorizing work, this study concludes that independent status of coordinate clauses is recognized and subordinate clauses can be included in adverbial clauses.

And chapter Ⅳ suggests teaching contents for complex sentences to solve problems in the education for the sentences. This study proposes inquiry activities that focus on structural features of complex sentences, which is designed for learners to view complex sentences as structural organisms of various grammatical factors. This helps learners fully understands Korean complex sentences and gives opportunities to inquire into and recognize linguistic structure as well.

This study is to enhance education for complex sentences by critically reviewing existing education and discussing the complex sentences from the educational perspectives. This study also seeks ultimate aims of grammar education that should lead to inquiry into language through complex sentences. It is meaningful that this study attempts to draft specific teaching plans based on the aims.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